

3-15-2007

신앙성장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를 중심으로

Jae Jun Baek 백재준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백재준, "신앙성장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07.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THE ROLE OF COMMUNITY IN SPIRITUAL GROW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IRCUIT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written by

JAE JUN BAE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in Ki Hwang

Chi Young Kay

Seyoon Kim

March 15, 2007

**THE ROLE OF COMMUNITY IN SPIRITUAL
GROW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IRCUIT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AE JUN BAEK

MARCH 2007

신앙성장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황진기 교수

백재준

2007년 3월

Abstract

The Role of Community in Spiritual Grow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ircuit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Jae Jun Baek

Doctor of Ministry

200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orean churches have grown remarkably in the last few decades. However, today Korean churches are facing various critical situations. The most widespread phenomena are declining church membership and weakened church leadership. These problems increase the nominality of Christians in Korea. But I think these critical situations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n churches to experience authentic revival that is lead by a spiritual movement.

Therefore this research seeks the renewal of Korean churches, especially the Korean Methodist churches. This paper has three objectives: first, to examine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spiritual growth in the ministry field; second, to present systems and curriculum in church communities for promoting spiritual growth; and third, to work out strategies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ministry.

In order to meet these three objective, research was conducted in four main areas:

1. The initial research defines the meaning of spiritual growth based on the Bible and observes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growth and the church community. The purpose of salvation is in the sanctified lifebeing like and following Jesus Christ. Therefore salvation is the place of departure for spiritual growth. And spiritual growth occurs more in communal surroundings.

If churches promote spiritual growth in community, it increases the spiritual maturity of the members and of the community itself.

2. Theological research was also undertaken, understanding the small group as a community for spiritual growth. Here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biblical background of small groups is necessary. The small group that is managed in a healthy way becomes good soil for spiritual growth.

3. The third area of research considers John Wesley's "Methodist" movement as a successful example of spiritual growth and the small group. At the center of John Wesley's Methodist movement are organizations called "class meetings." The class meeting has influenced the Korean Methodist Church from its beginning to the present. In order to improve the class meeting, this research considers its beginning, meaning, extens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and decline. This very important aspect of this study is a core matter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s renewal and growth in the future.

4. The fourth research area proposes three steps in the class meeting or three types of class meetings for promoting spiritual growth in small groups. These three steps are the family-member class meeting, the pastoral class meeting, and the disciple class meeting. I base these steps or types on the spiritual needs and levels of growth of church members. I also identify the five core values of the church worship, harmony, caring, ministry, and mission as the values to guide those class meetings.

A church itself can be regarded as one class meeting. The healthy growth of churches is proportionate to the healthy growth of class meetings. The class meeting system and core values discussed in this research can

make it possible to care for small groups in a more gospel-centered and effective way. When the whole church membership can experience community life in small groups, it helps not only personal spiritual growth but also the renewal and growth of the church.

This research is based on class meetings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But it is applicable to all of the Christian community, transcending denominations and areas. I hope this research can do much to contribute to healthy churches as the body of Jesus Christ and the community of love.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 D.

Chi Young Kay,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속4:6)

이번 박사과정을 끝까지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부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를 풀러신학교에 보내시고 지원해 주셨던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들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후원해 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부족한 아들을 위해 눈물로 드리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풀러신학교에 와서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들을 사귀게 되어 좀 더 넓고 다양한 세계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와 복음에 대해 깊이 있는 안목을 가르쳐주신 김세윤 박사님과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움을 주셨던 황진기 교수님께 감사들 드립니다. 황진기 박사님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도와 격려로 좋은 학문적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의 멘토로서 따뜻한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강승철, 혜경 목사님 내외분과 저의 신앙적인 스승이자 이번 논문에 신학과 목회적인 지혜를 나누었던 이석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들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곳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내로서 동역자로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랑하는 이정민 사모의 격려와 수고에 감사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인 딸 지은이와 아들 준영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는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마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정도 저의 인생마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의 마디를 매듭지으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자라나기를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2007년 3월 백재준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제 2 장 영적성장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8
제 1 절 영적성장의 정의	8
1. 영성과 영적성장	8
2. 영적성장에 대한 이해	11
제 2 절 영적성장의 대한 성서적 고찰	14
1. 영적성장에 대한 구약적 이해	14
가. 구약에서의 구원과 성화	14
나. 영적성장의 표징	15
다. 영적성장의 목적	16
2. 영적성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16
가. 영적성장의 요구	16
나. 영적성장의 지표	17
다. 영적성장의 방법	19
3. 영적성장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20
가. 영적성장의 요구	20
나. 영적성장의 지표	21
다. 영적성장의 방법	22
제 3 절 영적성장과 공동체에 대한 성서적 접근	24
1. 공동체의 의미	24
가. 하나님과 공동체	25
나. 구속사와 공동체	25

다. 교회와 공동체	26
2. 영적성장의 장으로서의 공동체	27
3. 영적성장의 목적으로서의 공동체적 삶	28
4. 영적성장과 교회성장	29
제 3 장 소그룹의 신학	31
제 1 절 소그룹의 성서적 배경	31
1. 소그룹의 정의	31
2. 창조에서 본 소그룹의 기원(origin)	32
3. 십계명에서 본 소그룹의 운영원리(principle)	33
4. 모세시대에 나타난 소그룹의 구조(structure)	34
5. 예수님의 소그룹 훈련(training)	35
6. 초대교회의 소그룹 사역(ministry)	36
제 2 절 교회사들 통해 본 소그룹 운동	37
1. 2세기이후 초대교회에서의 소그룹	37
2. 중세시대의 소그룹	38
3. 종교개혁 시대의 소그룹	39
4. 근대시대의 소그룹	41
5. 현대시대의 소그룹	43
제 3 절 교회내의 소그룹과 영적성장의 관계	44
1. 소그룹의 유형	45
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Church with Small Groups)	45
나. 소그룹 중심의 교회(Church of Small Groups)	46
다. 소그룹이 곧 교회(Church as Small Group)	46
라. 교회와는 별개의 소그룹(Church which is different from Small Group)	47
2. 소그룹의 특징	48
가. 소그룹은 인격적이다	48
나. 소그룹은 유연하다	48

다. 소그룹은 복음전파에 효과적이다	49
라. 소그룹은 수적 성장에 효과적이다	49
마. 목회적 몰입에 효과적이다	49
제 4 절 소그룹에서의 영적성장을 위한 핵심원리	50
1. 진정한 관계위에 세워지는 소그룹	50
2. 진리와 삶이 만나는 소그룹	51
3. 건강한 갈등이 있는 소그룹	51
4. 균형있는 목양이 있는 소그룹	53
제 4 장 웨슬리의 속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속회	54
제 1 절 웨슬리의 감리교운동과 속회	54
1. 웨슬리 속회의 배경	54
가. 역사적 배경	55
나. 사회적 상황	56
2. 웨슬리의 신학과 속회	57
가. 웨슬리의 성화론과 속회	57
나. 웨슬리의 교회론과 속회	58
3. 웨슬리의 속회의 특징	59
가. 웨슬리 감리교의 조직	59
나. 속회의 형성	61
다. 속회의 목적	62
라. 속회의 규칙	63
마. 속장의 책임	64
바. 속회의 영적성장요소	64
4. 감리교 속회의 변천	66
가. 영국교회의 속회	66
나. 미국교회의 속회	67
제 2 절 한국감리교회 속회 고찰	69

1. 한국감리교회와 속회의 역사	69
가. 초창기의(1890-1953) 속회	70
나. 혼돈기(1953-1958)의 속회	71
다. 성장기(1970-1990)의 속회	72
라. 1991년 이후의 속회	72
2. 한국감리교 속회의 현황	73
가. 속회의 구조와 운영	73
나. 웨슬리의 감리교 속회와의 차이점	74
다. 한국감리교 속회의 문제점과 진단	75
제 5 장 영적성장을 위한 속회조직의 적용	78
제 1 절 영적성장과 속회조직의 구조	78
1. 가족속회	81
가. 가족속회의 속회의 개요	81
나. 가족속회의 속회의 역할	81
다. 가족속회의 속회의 운영방안	82
2. 목양속회	83
가. 목양속회의 개요	83
나. 목양속회의 역할	83
다. 목양속회의 운영방안	84
3. 제자속회	85
가. 제자속회의 개요	85
나. 제자속회의 역할	85
다. 제자속회의 운영방안	86
제 2 절 교회로서의 속회커리큘럼	86
1. 커리큘럼의 내용	86
가. 예배	87
나. 일치	88

다. 양육	88
라. 사역	89
마. 선교	89
2. 속회별 커리큘럼의 운영	90
가. 가족속회에서 운영	90
나. 목양속회에서 운영	90
다. 제자속회에서 운영	90
3. 속회단계별 운영 리더십	91
가. 지도하기(Directing)	91
나. 촉진하기(Facilitating)	92
다. 본보이기(Modeling)	92
라. 코치하기(Coaching)	92
4. 속회 커리큘럼의 실제	94
가. 커리큘럼 계획서	94
나. 공과운영의 실제	94
제 3 절 속회운영	101
1. 속회의 실제	101
가. 속회의 구성	101
나. 속회의 모임	101
다. 속회의 진행	102
2. 속회의 관리규칙	102
가. 속회의 가입과 진급	102
나. 속도원의 책임	103
3. 속장의 관리	104
가. 속장의 자격	104
나. 속장의 교육	104
다. 속장의 책임	104
4. 교회적 지원	105

가. 목회자의 지도력	105
나.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	105
다. 제도적 구비	106
제 6 장 결론	107
부록1	110
부록2	111
부록3	112
참고문헌	113
Vita	117

표 목차

<표 1> 웨슬리 당시의 감리교조직 구성도	60
<표 2> 세 단계의 속회 구조표	81
<표 3> 세 단계 속회에서 다루어지는 핵심가치의 분포도	91
<표 4> 세 단계의 속회에서 사용되는 리더십 유형의 분포	93
<표 5> 세 단계의 속회에서 운영가능한 공과 주제의 예	94
<표 6> 세 단계의 속회에서 운영될 커리큘럼의 활동의 예	94
<표 7> 요 2:1-12의 본문에 따른 세 단계의 속회의 공과개요 및 운영표	96
<표 8> 가족속회의 공과진행 예	97
<표 9> 목양속회의 공과진행 예	98
<표 10> 제자속회의 공과진행 예	9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감리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하여 감리교의 소그룹인 속회에 대한 구조적 변화들 시도해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 위해서 무엇보다도 감리교회들 비롯한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20세기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의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는 1900년에 6만여 명으로 출발하였으나¹⁾ 한 세기가 지나면서 900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경이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주권적 섭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헌신한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노력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개신교 내부적으로는 아직 감소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거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²⁾ 한편 한국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5년 한국개신교인의 수는 8,616,438명으로 1995년 8,760,336명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³⁾ 두 조사의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의 성장에

1) 이정석,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0), 188. 원래는 1200만으로 성장하였지만 최근의 자료를 놓고 후반부는 수정하였다.

2) 한미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하 약칭 '한미준'으로 사용한다.)과 한국갤럽이 2005년 발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인구에 대한 개신교도의 비율이 나타나 있다. 84년에는 17.2퍼센트, 89년19.2퍼센트, 98년20.7퍼센트, 04년21.6퍼센트이다. 98년부터 04년까지 6년간 약 0.9퍼센트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한미준, 한국갤럽 공편, *한국교회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67.

적신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는 한국교회의 세속화이다.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는 근대사의 격동과 함께 해왔다. 이전의 가난했던 시대와는 달리 국민들은 경제력의 증가와 함께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여가를 중시하고 삶의 질과 만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다른 것들로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했다. 또한 한국사회가 점차 도시화 되면서 이전의 대가족 중심의 사회는 핵가족과 개인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교인들이 개성화되고, 개인의 삶의 필요에 민감하며, 교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권위는 무너져 가고 있으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퍼져가면서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종교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⁴⁾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와 불교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⁵⁾ 이것은 한국교회가 수적으로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곧 질적 측면도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회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에서 한계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본 연구자는 특히, 목회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성장주의 목회의 한계와 문제점이다.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듯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목회의 중요한 목적가운

3) 최근 2005년 통계청(www.kosis.nso.go.kr) 자료에 의한 것이며 외국인을 제외한 것이지만, 유사한 개신교인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성공회, 통일교, 영생교, 천부교, 영주교 등이 포함된 숫자이다. 따라서 실제 정통 개신교인을 보면 이보다 적은 수가 된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개신교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막연히 1,000만에서 1,200만 명이라고 생각했던 개신교인의 수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통계적으로 개신교인의 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상을 뛰어 넘은 것이다.

2005년: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IN0505&IDTYPE=3 참고;

1995년: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IN9506&IDTYPE=3&A_LANG=1&FPUB=3&SELITEM 참고.

4) 한미준 갤럽자료에 의하면 84년도에 종교인구와 비종교인구가 각각 43.8퍼센트와 56.2퍼센트 이었던 것이 20년이 지난 2004년에는 각각 57.0퍼센트와 43.0퍼센트로 역전이 되었다. 한미준, 한국갤럽 공편, *한국교회미래리포트*, 63.

5) Ibid, 67.

데 하나이다. 교회성장주의 목회가 한국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교회성장주의 목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의 양적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곧 교회의 질적 성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제자화와 선교, 친밀한 공동체, 영성과 성령의 열매와 같은 영역에 대한 소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많아졌지만 실제 삶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종종 목회자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른바 '명목상의 기독교인(nominal Christian)'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회성장주의 목회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자신이나 교회 그리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실제적인 변화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영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교회에서도 영적 성장(spiritual growth) 혹은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과 같은 교회의 질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⁶⁾ 비록 일부 교회에서 영성에 대한 개념의 혼동 또는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신비주의적인 혹은 금욕주의적인 형태를 낳기도 하지만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오늘날 유기체적 교회론에 입각한 '자연적 교회성장'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어 교회의 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됨'이 성장에 중요한 척도임을 알게 되었다.⁷⁾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지만 외형이 커졌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의 질적인 성장 또한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건설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목회와 교회구조의 한계와 문제점이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따르는 한국감리교회의 목회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구조를 가진다. 거의 모든 영역에 목회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신도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6) 본 논문에서는 성화,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형성하는 의미의 용어를 '영적 성장'으로 통일한다.

7) 자연적 교회성장은 성장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8가지 질적인 특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고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양적인 성장보다 자연적인 생명체의 원리를 따른 질적성장을 중요시 한다.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 외 역 (서울: NCD, 1999), 45, 78.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통계적으로 전체 교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주일예배에만 참석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봉사를 해도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에 편중되어 있다.⁸⁾ 성직중심의 사역구조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이가 마치 계급 구조와 같이 여겨지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목회자에게 사역이 집중되면 결국 일의 분배 문제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며 사역에 효율도 떨어진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운영은 교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기가 쉽다. 제도화된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목회자의 열심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교회의 구조에서 오는 문제들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구조로서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빌 벅햄(Bill Beckham)은 교회의 이상적 모델과 관련해서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의 양 날개로 날아오른 교회였다고 강조한다.⁹⁾ 그의 시각을 빌리자면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대그룹 위주의 성장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상대적으로 소그룹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역동성이나 친밀감과 같은 공동체성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많은 한국교회가 소그룹 조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구조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결국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현실적 과제는 '질적 성장에 대한 추구'와 대그룹과 소그룹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구조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자의 제안은 사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성장의 한계와 내부의 부조리에 부딪칠 때 마다 새로운 개혁운동이 있어 왔다. 그 가운데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초대 감리교 운동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본 연구자가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든 이유는 앞에서 요약한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의 과제로 제안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가장 적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사역의 배경이 되는 18세기 영국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변화가 급격하

8) 한미준, 한국갤럽 공편, *한국교회미래리포트*, 67.

9) Bill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개정판; 서울: NCD, 2005), 32-33.

게 일어나고 범죄와 부패가 만연한 사회였다. 그러나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이러한 사회를 새롭게 하기에는 지나치게 교조화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이런 때에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고 부흥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을 보면 성화(sanctification)와 속회(class meeting)라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다른 용어로는 '영적 성장'과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웨슬리의 영성의 특징은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성화를 강조한 것이며 이는 성결(holiness)에 대한 추구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웨슬리는 영적훈련의 하나로 '교회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속회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웨슬리가 당시 커다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감리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성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회에 소그룹을 활성화 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살펴보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감리교회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웨슬리의 전통에 서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감리교회는 웨슬리 당시의 감리교회가 가졌던 조직력과 생명력에 비해 상당히 빈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자는 그것이 초기 감리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성화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고 역동적인 소그룹이었던 속회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한국감리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원래적 뿌리가 되는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의 정신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앞에서 제기한 한국교회의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본래적 뿌리를 잃어가는 한국감리교회의 현실에 대한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의 원리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가 한국감리교회의 목회현장에서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다. 사실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강조하지만 실제생활에서 변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자훈련 자체가 열매를 맺기 어려운 사역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영적 성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도 하

10) 이것은 각각 앞에서 제시한 '질적성장의 영역'과 대그룹과 소그룹의 조화를 이룬 '교회구조의 영역'에 대응하는 것이다.

다. 영적인 성장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 교회가 새로워지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중요한 목적이다.

둘째, 영적 성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동체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영적 성장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공동체신학의 중요한 핵심이고 소그룹사역의 출발점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기초공동체로서 소그룹의 장점과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한국감리교회의 고유한 조직인 속회를 전인적인 소그룹 공동체로 활성화하여 영적 성장의 유용한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감리교회 속회는 단지 교회내의 조직이나 친교그룹을 벗어나 서로 책임지고 자라나는 공동체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살펴보는 일들은 속회의 원래적 역동성을 이해하고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기에 속회를 운영했던 감리교적 정신을 유지하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속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목회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속회구조를 제시해 보며 이와 관련하여 속회에 사용될 커리큘럼과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중심된 방법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이다. 본 연구자의 신학적 입장은 복음주의적 성서적 원리에 기초한 감리교 신학에 따르며, 이러한 사상적 기초를 근거로 감리교 운동과 속회에 관련해서는 역사적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다섯 영역의 주된 연구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영적 성장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성서와 교회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고 영적 성장의 당위성과 특징을 찾는다.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영적 성장의 의미와 방법론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는 기초공동체로서의 소그룹에 대한 연구이다. 소그룹에 대한 신학과 이론들을 고찰해 보며, 성공적인 소그룹 사역의 몇몇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소그룹을 통한 영적 성장이 활성화 되는 부분에 관심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그룹이 가진 기능성과 한계성을 이해하고자 하며 소그룹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원리와 전략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는 소그룹을 통한 영적 성장의 중요한 모델로서 요한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대한 고찰이다. 여기서는 요한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사상과 열망을 이해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제도로서 감리교내의 속회와 당시의 다른 소그룹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의 영국사회의 상황과 그 사회를 변화시킨 웨슬리 감리교 운동의 동기와 동력을 이해하고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고자 한다. 역사적인 자료와 웨슬리의 원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웨슬리 운동을 바라볼 것이다.

넷째는 원리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소그룹의 원리들을 토대로 한국의 감리교회를 진단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감리교회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나 감리교 출판물을 참고할 것이며 감리교회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적용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섯째, 한국감리교회 속회의 새로운 갱신을 위해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 속회의 새로운 구조와 이에 따른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영적 성장이라는 개념에는 영적인 수준의 점진적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현재 지역별로 편성된 속회 구조와는 다른 영적 성장단계에 따른 속회과정과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편성된 속회의 구조에 필요한 커리큘럼과 공과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마지막 과제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속회'모델은 우선적으로 한국감리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나아가 각 교단에서도 그 원리를 응용하여 적절한 명칭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 2 장

영적 성장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목회현장에서 영적인 성장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에 속한다. 교회의 성장이나 변화, 그리고 갱신은 교회에 속한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높아진 관심만큼 영적인 성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와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신학이나 방법론과 관련해 볼 때 학문적 연구는 아직도 실제적 지침과 방향에 있어서 거리감을 지닌다.

이번 장에서는 영적 성장의 의미, 원리, 구체적인 과정을 복음주의적 신학과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영적 성장과 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신학은 성서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며, 이러한 영적 성장이 신앙 공동체와 어떠한 상호 관계를 가지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제 1 절 영적 성장의 정의

1. 영성과 영적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래에 종교와 문화계에 유행처럼 사용되는 ‘영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¹¹⁾과 비기독교

11) 기독교계에 있어서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일이다. 그동안 ‘영성’이라는 용어는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오순절 계통교회의 카리스마적인 현상을 말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영성을 ‘경건(piety)’이나 헌신(devotion)이란 말로 대치해서 사용했으나 이들은 영성의 특수한 일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신경규, “선교적 영성형성에 과정에 관한 일 고찰,” 제2차 국제신학학술대회 자료집 (천안: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2003), 265.

인¹²⁾ 모두에게 ‘영성’에 대한 관심은 늘어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다. ‘영성’은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제각기 의미가 달라서 실제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영성’이란 용어의 사용을 보면 특정한 종교의 틀을 넘어선 ‘종교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영성, 불교의 영성, 뉴에이지의 영성이라는 말들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이 영성을 모든 종교의 공통된 요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자면 기독교계 안에서도 초대교회의 영성, 수도원의 영성, 칼빈의 영성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들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안에 특정한 교파나 인물이나 운동가운데 있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영역, 그러면서도 그것이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영역을 의미한다.¹³⁾

이와 같이 영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의 증가는 오히려 영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참된 영성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적 영성이 참된 영성이라고 확신하며 기독교적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서에서 사용된 ‘영’(靈)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텐리 그렌츠(Stanley Grenz)는 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의 히브리어 ‘루아흐’(ru’ach)는 기본적으로 ‘숨’ 또는 ‘바람’을 의미하고 이차적으로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의 생명원리’를 의미한다. 고대인들은 ‘숨’을 생명의 표징으로 이해했으며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사고를 통해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이 인간존재의 근원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성서에서 나타난 ‘루아흐’의 중요한 의미는 생명을 창조하고 지명시키는 신적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의 헬라어 ‘프뉴마’(pneuma)도 ‘바람’과 ‘숨’을 가리키며

12)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다. 예를 들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원론, 신비주의, 반지성주의, 은사주의 금욕주의 및 신령주의 등 다양한 구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성은 20세기의 중요한 관점이었던 이성(理性)과 차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성을 초월한 새로운 정신세계를 의미한다. 김정우, “성경의 영성과 성경적 영성,” 신학지남 72권 3집 (2005), 8-12.

13) 본 논문에서 ‘영성’의 여러 다양한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이 지향하는 것으로 성서를 바탕으로 기독교적 영성의 기본적인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나아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서에서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 혹은 하나님이 부여하는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이상과 같은 의미로 볼 때, 기독교적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며 흠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서 영적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초래했다. 따라서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죽음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죽음의 현상을 가져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회복하게 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이 살아나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리고 '영성'을 회복한 인간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다.¹⁵⁾

이렇게 볼 때, 기독교적 영성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인간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성과 영적 기능성(ability)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영적 기능성의 개발에 따라서 '영성이 있다' 혹은 '영성이 없다'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시대와 성향을 반영하여 독특하게 형성된 '영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같은 영성이라도 사막교부들의 영성, 웨슬리의 영성, 청교도의 영성과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이 각각의 기능을 훈련하고 개발하며 활용할 때 점차 자라나는 것처럼, 영성도 그러한 과정과 노력들을 통해 발전되어 간다. 영성의 개발은 원래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14)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141-142.

15) 영성을 발전시켜 가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안의 영성을 개발하고 이루어 간다는 의미에서 '영성형성(spiritual formation)'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유기체적인 생명체의 탄생과 자라남의 과정과 의미를 강조하여 '영적 성장(spiritual grow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영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성장'이나 '소그룹의 성장'과 병행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서로 연관을 가질 때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이때 영적 성장은 개인의 신앙적, 영적 성장을 나타내는 의미로 주로 사용될 것이다.

적인 영성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을 발전시켜 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곧 신앙생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영적 성장을 생각해 볼 때, 신경규의 지적은 큰 도움이 된다. 그는 영적 성장을 크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차원과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한다.¹⁶⁾ 칼빈은 이러한 두 영역의 개념을 '성화'와 '경건'이라는 말로 종합하였다. 즉,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경건'은 성화의 외적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¹⁷⁾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 성장의 의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는 것이다. 둘째, 영적 성장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과 순종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외부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이러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실천의 영역 모두에서 일어나야 한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2.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

기독교 내에서는 영적 성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견해와 개념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자는 영적 성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와 연관된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적 성장은 성화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성화는 히브리어 '카다쉬'(qadash)와 헬라어 '하기오스'(hagios)에서 나온 단어로 '어떤 물건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는 것', '떨어져 있는 것', '분리'를 의미한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말한다(시 4:3).¹⁸⁾

성도가 칭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증생에 이르게 된 과정은 구원론의 과정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속에서 성장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속한다. 성서는 성화의 과정을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

16) 신경규, "선교적 영성형성에 과정에 관한 일 고찰," 269.

17) Lucien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GA: John Knox Press, 1974), 111-135, 신경규, 269에서 재인용.

18) 하용조 편,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1), 655.

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함심을 굳게 하라” (벧후 1:10),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¹⁹⁾ 때문에 성화는 구원과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원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는 것이라면, 성화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현재에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정석 교수는 성화가 구원의 본질적 요소이며 성화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²⁰⁾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도 각각의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으나, 구원과 더불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²¹⁾

이러한 성화 과정의 중요성은 구원에 대한 법정적인 개념보다는 유기체적 개념을 통하여 이해되어야 한다.²²⁾ 유기체적 관점에서 구원은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남으로 시작된다. 어린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배출하는 것과 같은 유기체적 활동이 필요하다. 생명체의 탄생과 자라나는 과정이 분리될 수 없다면, 영적 성장은 구원과 나누어 질수 없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둘째, 영적 성장은 제자훈련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 제자훈련으로서 영적 성장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한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기독교의 영성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드와이트 펜티코스트(Dwight Pentecost)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제자를 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19)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성경을 따른다.

20) 이정석 *신앙성장론*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5), 2.

21) 대표적으로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성화에 대하여 감리교와 개혁주의, 오순절 교회, 케직파, 어거스틴 세대주의에 속한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토론하며 논쟁을 한 내용을 종합하고 있다.

22) 성서는 구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림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중 칭의적 개념은 법적으로 죄인에게 의롭다함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칭의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기는 쉬우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할 성화에 대한 당위적 이해를 갖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화는 법적인 개념에서 보다 유기체적 측면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쉽다. 성서는 많은 부분에서 구원을 유기체적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구원을 거듭남으로 설명하셨으며(요3:3)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은 한 유기체가 된 것으로 가르치셨다(요15:5).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았다(고후5:17). 또 이방인의 구원을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 설명하였으며(롬11:13-24),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표현하였다(엡1:23; 4:12, 골1:18).

를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막을 내렸다”라고 했다.²³⁾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제자로 성장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²⁴⁾

다른 하나는, 영적 성장이 훈련의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개신교의 대표적인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영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²⁵⁾ 영적 성장은 일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각과 습관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의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되지는 않는다. 포스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훈련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²⁶⁾ 따라서 영성성장은 지식의 전달이나 단기간의 깨달음,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생각과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셋째로, 영적 성장은 공동체와 연관하여 이해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이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는 것은 결국, 제자들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의미이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성서에서 영적 성장과 관련된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로 나타나며 따라서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영적 성장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영적인 어린

23) Dwight J. Pentecost, *제자를 삼아라*,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7.

24) 현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제자훈련의 과정과 프로그램이 오히려 영적 성장으로서의 제자훈련을 이해할 때 혼돈을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제자훈련과정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에서 지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적으로 성경과 기독교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처드 피스(Richard Peace)가 지적한 대로 진정한 문제는 제자훈련이라고 부르는 활동들이 있지만, 신앙인의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Richard Peace, “From Discipleship to Spiritual Direction,” *Theology, News and Notes*, March (1999), 8.

25)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성장과 훈련*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크게 3가지 차원의 훈련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적훈련이며 여기에는 명상(묵상)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의 훈련이 있다. 둘째, 외적훈련이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성(정직)의 훈련, 홀로 있기의 훈련, 종의 훈련, 봉사의 훈련이 있다. 셋째, 단체훈련의 과정으로 고백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찬양의 훈련이 그것이다. Richard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1.

26) Ibid., 22.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 과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점진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 가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 2 절 영적 성장의 대한 성서적 고찰

성장이란 개념은 생명체의 자라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라는 것에서 영적 성장은 시작된다. 성서는 영적 성장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

1. 영적 성장에 대한 구약적 이해

구약에서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에 의한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과정인 '성화'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시작하기로 한다.

가. 구약에서의 구원과 성화

구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구원은 주로 환란이나 질병, 적의 침략 등에서 벗어나는 외적인 모습으로 주로 나타난다. 또한 구원의 범위는 개인적인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질 때가 많다. 구약의 다양한 구원의 기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구원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6a),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김정우의 지적과 같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조건성이 있다.²⁷⁾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약

속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조건성을 가진 언약’들은 성화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²⁸⁾

나. 영적 성장의 표징

구약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룩함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 11:44). “너희는 내게 거룩할 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 이니라”(레 20:26).

이러한 거룩함은 ‘성화론’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화’는 “분리되어 있다”, “신성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거룩’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성화는 어떤 것을 따로 떼어 놓음으로써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 또는 과정이다.²⁹⁾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행위나 태도는 모두 성화의 과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성서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이다. 구약성서는 이러한 거룩함을 외적인 표징으로 나타내도록 할 때가 많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한 표징이었으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이 문에서 끊어졌다(창 17:9-14).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된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거룩함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할례에 덧붙여졌다(출 20:8-11; 31:12-17).

그러나 구약에서 거룩함의 외적인 표징들이 단지 외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았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신 30:6)의 말씀처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외적인 표징들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결국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27) 김정우, “구약성경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 박영선 편 (서울: 이레, 2005), 50.

28)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부로 결정이 된다.

29)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635.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함의 표징들은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출 16:28, 신 27:9,10). 요약한다면, 구약에서 영적 성장의 의미를 가진 거룩함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마음으로 부터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구약의 성결에 대한 규례나 제사 등은 모두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영적 성장의 목적

영적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며 구체적으로 부름 받은 백성들의 찬송하는 입술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됨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19장 5-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언약을 성실히 준수하는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신 28:2). 시편 1편 1-2절은 복 있는 자의 선결조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을 통한 거룩함은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준다.

2. 영적 성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서를 중심으로 영적 성장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적 성장의 요구

이정석 교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음의 크고 작음을 따라 평가했다는 것과 큰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였음을 지적하며 이는 예수님이 믿음의 성장을 전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하였다.³⁰⁾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의식주를 염려하는 자들이다(마 6:30-32).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였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마 8:25-26), 물위를 걷다가 염려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마 14:31),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마 16:8) 그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였다. 한편, 이방인이라도 믿음의 칭찬을 받은 무리들이 있다.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였고(마 8:10), 계속되는 거절가운데 믿음으로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하셨다(마 15:28).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분명히 하셨다(눅 18:8).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인데 그 성장의 결과로서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1-23절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앗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씨앗을 받은 네 종류의 밭과 각각의 밭의 결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서 각각의 밭이 같은 씨앗을 받았다 하더라도 열매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신앙인이라도 영적 성장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씨앗을 심는 목적임을 보여줌으로 신앙생활에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결실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이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영적 성장의 지표

예수님은 영적 성장에 따른 결과를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의 비유로 가르치셨다(마 7:17-19).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열매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 21:43)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30) 이정석, *신앙성장론*, 5-6.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마 7:22-23).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 3:35)고 강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마12:28-34)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임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사랑의 이중계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에 대하여 김세윤 교수는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계명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³¹⁾

사랑의 이중계명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십계명의 정신을 요약한다. 십계명의 앞에서부터 네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나머지 여섯 계명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

31)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08-112.

님의 율법의 요약과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을 알 수 있는 척도로서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한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영적 성장에는 공동체의 삶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영적 성장의 방법

복음서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의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영적 성장의 방법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15:4).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 성장은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가운데 있어야 한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b). 이것은 관계성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곧,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적 성장의 개념에는 이미 공동체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적으로 예수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계속적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단순한 삶이 곧 영적 성장의 기본적인 길이다.

3. 영적 성장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복음서와 비교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다.

가. 영적 성장의 요구

사도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일에 거룩하라는 것으로 영적 성장을 요구한다(벧전 1:15-16). 또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떠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선언한다(벧후 1:4). 히브리서 기자는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데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히 6:1,2). 바울은 영적 성장을 비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다음은 바울이 가르친 영적 성장의 표현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바울은 영적 성장을 명시적으로 가르쳤다. 신자 중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롬15). 이는 아직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자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력한 자를 의미한다(롬14). 고전 2장에서는 성도를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밥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드러운 젓만 먹을 수 있는 유아에 비유하여 성장을 권유한다. 그들은 아직도 육신을 따라 행하며 자아 중심성을 버리지 못함으로서 시기와 분쟁에 시달리는 초보들이다. 고전 13장에서는 성장의 핵심적이고 종합적 덕목인 사랑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한다.³²⁾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며 영적 성장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함을 강조한다.

32) 이정석, *신앙성장론*, 7.

나. 영적 성장의 지표

바울은 영적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성령의 열매로 묘사하였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영적 성장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영적 성장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는 영임을 성서는 반복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방인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롬 15:16). 베드로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불렀다(벧전 1:2).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b)라는 바울의 설명에도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 바울은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

성령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영으로서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감에 따라 나타난다.

둘째, 영적 성장은 인간의 협력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면서 또한 ‘우리’의 열매이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 사랑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권면한다(벧후 1:5-11).

셋째, 영적 성장은 내적인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외형을 흉내 내거나 일회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영역이다. 인격이나 성품, 태도나 세계관과 같은 영역은 쉽게 바뀌어 지지도 않고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우리 내면에서 형성되는 성품과 습관, 그리고 태도에 관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고 서술한다. 이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내면적 요소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본질적임을 보여준다.

영적 성장의 표지로서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서로’³³⁾가 돌보고 인사하며 사랑하라는 사도들의 수많은 가르침을 주목해야 한다(롬 12:10, 고전 12:25, 고후 13:11, 갈 5:13, 엡 4:2, 골 3:13, 살전 4:9, 벧전 4:8, 요일 3:23 등).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랑의 이중계명의 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 할 것 이니라”(요일 3:23).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하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는 구절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랑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꼭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로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은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다. 영적 성장의 방법

사도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로 이루어 갈수 있다.

첫째, 영적 성장은 죄를 회개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더러움에서 자신을 씻으라고 권면한다(고후 7:1). 이는 개인적인 권면이면서도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원리가 된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행 2:38, 3:19, 17:30).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시 7:12, 겔 18:30, 눅 13:3, 롬 2:5, 벧후 3:9, 계 2:5, 2:22, 3:3). 회개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며,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히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33)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대한 계명에서도 ‘서로’가 강조되고 있다.

(갈 6:19-21).

둘째, 영적 성장의 구체적인 도착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인 목표를 잘 못하고 있으면 다른 길로 빠지기가 쉽다.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영적 성장의 최종 목적은(goal)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 따라서 영적 성장은 종교적 행위를 통한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셋째,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바울은 기도함으로 에베소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엡 3:14-19). 그리고 영적인 강자가 되기 위해 무장을 할 것을 말하며 무엇보다 기도를 강조하였다(엡 6:18).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져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다(빌 1:9-11).

무엇보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이러한 기도는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기도는 더욱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된다.

넷째, 영적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훈련은 자율성 보다는 타율성을 요구하기도 하며 오랜 기간의 반복을 통한 습관의 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때로 훈련은 즐겁지는 않지만 영적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광야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7-8)에서처럼 경건은 부단한 훈련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

다섯째, 영적 성장은 배우고 깨닫는 ‘양육’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바울의 지적처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롬 10:17). 따라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행 11:26).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의 가장 좋은 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은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골 3:16a)의 말씀은 서로 가르치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권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 3 절 영적 성장과 공동체에 대한 성서적 접근

영적 성장은 개인의 삶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앙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적 성장의 중요한 지표들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살펴보면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그것이다. 바울이 말한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살펴볼 때 공동체를 위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영적 성장과 공동체가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공동체의 의미

예수님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신앙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19,20).

그런데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 하나님과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신다. 이에 대해 아이스노글(G. W. Icenogle) 교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관계성에 있고, 삼위들(three persons)간에 언약적 관계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³⁴⁾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며 관계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자신은 이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데(요일 4:16) 사랑은 일차적으로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순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벧전 2:9).

나. 구속사와 공동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사건을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였고(창 2:18),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공동체를 만드셨다(창 2:24).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사 43:21).

둘째,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로 인간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불순종을 따라서 죄가 공동체에 들어왔고 그 결과 진노를 받게 되었다(엡 2:1-3). 스탠리 그렌즈에 의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³⁵⁾

셋째, ‘구속’은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표하게 된다. 구속사를 하나

34)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 1997), 24.

35)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286.

님의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볼 때, 성화의 과정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넷째, 성화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성장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전우주적인 차원에 미치게 될 것이다(엡 1:10).

하워드 스나이더(H. Snyder)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킴으로써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주장한다.³⁶⁾ 그러므로, 넓은 시각으로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교회와 공동체

신약성서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하며 이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³⁷⁾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듯이, 두 영역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뜻하신 본질적이고 우주적인 측면을 가지면서도 지상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시적인 현실성을 가진다.

신앙생활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부르셨다는 것은 개개인의 부름만이 아니라 곧 실재하는 교회공동체에 대한 부름도 포함한다. 반면 단지, 교회에 출석하여 멤버십을 가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것은 아니다. 신자는 영원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 동시에 지상에 한정된 교회에 속해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대표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 실재적으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36) 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형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57-59.

37)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 '택함 받은' 등의 뜻을 가진다. 이 말은 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가리키기도 했기 때문에 '모임'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행19:32, 41). 70인 역에서는 히브리어 '카할'(qahal)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는데 이는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중을 의미했다. 하용조 편, *비전성경사전*, 61.

2. 영적 성장의 장으로서의 공동체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공동체의 신학을 이해하게 될 때, 영적 성장은 공동체에서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는 먼저 소속된 신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도와주는 토양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공동체적 삶과 교제, 양육과 봉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사실상 평범한 사람들로 제자를 삼았는데 제자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을 같이 나누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이 증계명에서 '이웃'은 일차적으로 같이 생활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신앙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데, 유기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수많은 지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필연적 관계임을 나타낸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다. 믿음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될 때 생겨나게 된다(롬 10:13-15).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동역자로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고전 3:6-7)

하나님의 집³⁸⁾으로서의 공동체는 영적 삶의 기초가 된다(딤후 3:15).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7)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가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고(히 10:24), 죄를 이기기 위해 서로 권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히 3:13).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아이스노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8) 표준새번역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번역되어 있음.

성숙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동체와 성령의 대면하는 능력을 입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소그룹이 날마다 경험함으로 빚어지는 결과이다. 영적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과정이며 산물이다. 고립된 개인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영은 공동체를 요구한다. 개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성장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영적 유아기에 머물게 된다.³⁹⁾

3. 영적 성장의 목적으로서의 공동체적 삶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 공동체가 좋은 토양이 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신자들이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개인의 변화는 곧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새롭게 갱신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 기드온이나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왕들, 그리고 다니엘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를 돕고 변화시키는데 부름을 받았다. 이렇듯 한사람의 변화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요 17:19).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의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신앙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살전 1:7-8).

그리고 개인의 영적 성장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사건 이후에 변화된 성도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가 헌신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행 2:44-46). 성서에서 영적 성장에 대한 요구들을 보면 공동체를 보존하며 건강하게 세워 가는데 필요한 계명들로 이해될 수 있다. 시내산 언약으로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네 개의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나머지 여섯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계명의 정신을 사랑의 이증계명으로 요약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도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벧전 4:10, 고전 12:7-11).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

39)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347.

해 사용되어야 한다(고전 14:26).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하신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성숙한 자임을 암시한다(막 9:35).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공동체에 영향을 주며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4.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

일반적으로 영적 성장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성서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서 영적 성장은 공동체와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성장에 영향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는 소속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은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빌 헐(Bill Hull)은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는 그리스도와 개인과의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⁰⁾

이러한 관점은 교회성장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교회는 본질로서의 영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어원의 정의를 볼 때 건물이나 기관이 아닌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질적인 공동체(the essential community)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다.⁴¹⁾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은 내적인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인 각성과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갱신의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 교회가 갱신되면 교회의 건강과 활력이 증대되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갱신과 영적인 각성이 교회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저명한 교회성장학자인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신앙부흥과 교회성장

40)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 요단, 1993), 15.

41)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8), 16.

의 실례를 분석하면서 교회에 복음적 각성(evangelical awakening)과 신앙부흥이 일어날 때 급격한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⁴²⁾ 자연적 교회성장(NCD)⁴³⁾의 선구자인 크리스찬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열정적인 영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열정적인 영성은 교회가 가진 영적신조나 교리, 혹은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⁴⁴⁾ 나아가 슈바르츠는 "열정적 영성'은 교회성장 신학의 핵심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잘 설명하며 믿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의미한다."고 결론지으면서 열정적 영성의 기초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언급하였다.⁴⁵⁾

따라서 바람직한 교회성장은 성도들에게 먼저 영적인 각성과 성장이 일어남으로써 신앙적이고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 성장은 교회성장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교회성장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42) Donald A McGavran, *교회 성장 이해*, 이요한, 김종일, 전재욱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7), 286-312.

43) NCD란 'Natural Church Development'(자연적 교회성장)의 약자로 독일 신학자 Christian A. Schwarz가 세계 6대주 32개국의 1000개의 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견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NCD는 교회의 건강을 결정짓는 8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어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말한다.

44)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26.

45) Ibid, 27.

제 3 장

소그룹의 신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이번 장에서는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소그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으로 시작했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기독교 부흥운동들은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무엇보다 소그룹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주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제 1 절 소그룹의 성서적 배경

성서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성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공동체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명성훈은 성서에 나타난 소그룹의 요소들을 기원(origin), 운영원리(principle), 구조(structure), 훈련(training), 사역(ministry)으로 구분하였다.⁴⁶⁾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소그룹의 성서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과 개념들을 정리하면, 그 가운데서 모든 내용을 통합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학적으로 소그룹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알고 있으며, 그들이 같은 그룹에 속해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⁴⁷⁾이

46)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37-53.

라고 규정한다. 아이스노글은 “소그룹은 서로의 발전과 다른 이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몇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만난 모임이다”⁴⁸⁾라고 정의한다.

소그룹이 교회 내에서 갖는 의미로 명성훈은 “교회의 소그룹이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몸을 구성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된 상호 유기적인 단위”⁴⁹⁾라고 서술한다. 제프리 아놀드(Jeffery Arnold)는 제자훈련과 관련하여 “소그룹은 더 낫은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헌신한, 의도적으로 모이는 3-12명의 사람들의 모임”⁵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기독교적 소그룹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그룹은 일반적으로 3-4명에서 12-15명 정도의 인원을 가진 모임이다. 둘째, 소그룹은 교회 내에서 공동의 사역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서로간의 교제를 통하여 연합된 친밀감을 경험하는 기초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소그룹은 예배와 양육, 교제와 전도가 있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라 할 수 있다.

2. 창조에서 본 소그룹의 기원(origin)

소그룹은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구약의 창조사건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창 1:26). 여기서 복수로 표현된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창조에서도 반영된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의 구절은 공동체로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보여준다. 아이스노글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소그룹의 뿌리가 된다고 지적한다.

47) Donald C. Pennington, *소그룹 내 행동의 사회심리학*, 한지은, 유승민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3-5.

48)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16.

49)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15.

50) Jeffrey Arnold,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92), 9.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공동체와 상호 연관된 언약적 관계로 존재한 것이다. 대화와 교통의 세 가지 영역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내적인 영역), 인간의 그룹 안에서(내적인 영역), 하나님의 그룹과 인간의 그룹 간에(상호영역) 대화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는 언약적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하는 것이다.⁵¹⁾

이렇듯, 최초의 소그룹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가운데 있는 관계성을 반영한 것이다.

3. 십계명에서 본 소그룹의 운영원리(principle)

성서학자 폴 헨슨(Paul Hanson)은 “십계명(Ten Commandments)은 인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언약 공동체의 헌장(charter)”⁵²⁾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따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계명의 원리들은 언약공동체를 지향하는 모든 소그룹에도 적용가능한 원리가 된다. 본 연구자는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기독교 소그룹의 제일 중요한 원리요 출발점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라고 확신한다.⁵³⁾ 공동체의 질서와 규율을 결정짓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공동체는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되게 될 것이다. 공동체의 갈등을 풀어나가고 미래의 진로를 모색할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

51)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23.

52) Paul Hanson, *The People Called: The Growth of Community in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56.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40.에서 재인용.

53) 참고로 아이스노글은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20:3)는 소그룹 안에서 한분의 주(One Lord)만이 있으며 모든 소그룹의 최고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출20:4)는 소그룹 안에서 한 구성원이나 인간적인 제도가 우선이 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20:7)는 소그룹 안에서는 긍정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건강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20:8)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듯이 소그룹의 모임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소그룹이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내부적인 운영원리로 나머지 여섯 개의 계명을 살펴보자. 다섯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는 소그룹이 서로가 가족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가 섬기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여섯째, “살인하지 말찌니라”(출 20:13)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적대감을 사랑으로 다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소그룹은 서로가 용납하고 화해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14)는 소그룹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기초하여 성(性)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 아이스노글은 “에덴동산 이래로 인간은 성을 대면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성적 역기능은 항상 공동체의 깊은 영성을 가로막는 요인”⁵⁴)이라고 강조한다. 여덟째, “도적질하지 말찌니라”(출 20:15)는 문자 그대로 탐심과 욕심을 통해 소그룹 안에서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을 균형 있게 사용하라는 소그룹의 운영원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는 것과 개인이 소그룹의 시간을 독차지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홉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찌니라”(출 20:16)는 소그룹은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서 있어야 한다. 거짓말, 비방의 말, 그리고 비밀을 발설하는 것과 같이 신뢰를 깨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해준다. 열 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출 20:17)는 소그룹 안에서 탐심을 버리고 서로가 가진 은사와 재물과 시간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십계명은 소그룹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원리가 된다.

4. 모세시대에 나타난 소그룹의 구조(structure)

출애굽기 18장 13-17절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많은 사람을 재판하는 것을 관찰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재판의 책임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나누어 분담할 것을 제안한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지도력을 위임하였으며 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었다. 이 본문은 소그룹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시사한다. 첫째, 소그룹의 구조는 공동체의 사역에 효

54)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70.

을성을 가져다준다. 모세는 혼자서는 백성들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조직해서 책임을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둘째, 소그룹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도력을 공유하게 된다.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된 지도력은 오히려 공동체에 경직을 가져오기도 한다. 아이스노글은 이러한 점을 들어 “인간이 만든 문화의 구조는 피라미드처럼 중앙집중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한데 비해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은 순환과 분산, 분권화와 인격화”⁵⁵⁾라고 지적하였다. 소그룹은 지도력을 공유함으로 활성화 된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반영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조로서 가치가 있다.

5. 예수님의 소그룹 훈련(training)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3장 14-15절에는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다. 존 맬리슨(John Mallison)은 “그리스도의 계획의 핵심은 역동적인 소그룹이었으며 대중보다는 의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헌신하셨다”⁵⁶⁾고 지적한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의 소그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에서 몇 가지 소그룹의 중요한 훈련 원리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소그룹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12명에 그치지 않는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70명을 파송하신 적도 있고(눅 10:1) 부활 후에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다(고전 15:6).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 처음부터 12명의 핵심적인 멤버들로 소그룹을 형성하여 훈련하셨다. 소그룹은 소그룹을 경험한 핵심멤버들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간다.

둘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하여 소그룹의 지도력이 훈련되었다. 존 맬리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신 방법은 교제함으로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단순하게 도제(徒弟) 형식으로 제자를 키워냈다”⁵⁷⁾고 지적한다. 함께하는 삶 속

55)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119.

56) John Mallison, *생동감있는 소그룹메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5), 24.

57) Ibid., 26.

에서는 서로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소그룹의 훈련방식에 대해서 빌 헐 (Bill Hull)은 “만약, 대그룹이 무엇을 왜 하는가를 말해줌으로써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면, 소그룹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과 직접 실습을 해봄으로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⁵⁸⁾고 말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과의 상호교제를 통해 공동체를 이끄셨다.

6. 초대교회의 소그룹 사역 (ministry)

초대교회에는 성전에서의 대그룹의 모임과 각자의 집을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의 모임이 공존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주로 성전과 가정의 두 가지 초점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점차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소그룹의 형성과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초대교회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개인가정 집을 점점 예배와 교제 그리고 가르침과 선교적 선포의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누가는 가정집이 기도회의 장소(행12:12), 교제를 위한 저녁모임(행 21:7), 성찬식(행2:46), 기도와 예배 그리고 가르침을 위한 철야집회 장소(행20:7), 즉석에서 열린 전도집회(행16:32), 복음을 듣기 위하여 계획된 집회(행10:22), 결신 후의 상담을 위한 만남(행18:26), 조직적 교육(행5:42) 등의 장소로 묘사한다.⁵⁹⁾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는 가정 단위의 소그룹 교회의 형태로 발전되고 전파되었다.⁶⁰⁾ 명성훈은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정교회로서의 초대교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특정인의 가정에서 모인 교회이다.

58) Bill Hull, *목회자가 제자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 1994), 225.

59) 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London: Hodder & Stoughton, 1971), John Mallison, *생동감있는 소그룹메뉴얼*, 27에서 재인용.

60) John Mallison, *생동감있는 소그룹메뉴얼*, 28.

예를 들어, 고린도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큰 건물 교회가 아니었다. 고린도교회는 20에서 30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였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와 로마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집에서 출발하였다(고전 16:19, 롬 16:3-5). 라오디게아 지방에서는 늬바의 집에서 크리스천 소그룹들이 모임을 가졌다(골 4:15).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언급할 때 가정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갈 6:10, 엡 2:19)⁶¹⁾.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소그룹에는 다섯 가지의 구분되는 활동이 있었다. 첫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행 2:46,47). 둘째, 초대교회는 공동체적 교제를 나누었다(행 2:42). 이러한 교제는 날마다 모이는 것과 서로의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더욱 증가되었다(행 2:44-47). 셋째, 초대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양육에 중점을 두었다(행 4:18; 5:20,21; 5:42; 11:26; 15:35; 18:11; 20:20; 28:31). 넷째, 초대교회는 봉사와 구제하는 사역에 열심을 냈다(행 2:44-47, 고후 8:1-2).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였으며(행 4:32-35), 봉사와 나눔을 전담할 집사들을 선출하기도 했다(행 6:1-7). 다섯째,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였다.⁶²⁾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고(행 13:1-3)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선교를 떠나게 된다(행 16:6-10). 이렇듯 초대교회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와 교제, 양육과 봉사 그리고 선교 활동을 통하여 역동적인 사역을 하였다.

제 2 절 교회사를 통해 본 소그룹 운동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소그룹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서 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교회사에 나타나있는 소그룹의 변화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교회를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61)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49.

62) 초대교회의 봉사는 선교의 활동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구제와 희생적 봉사는 교회공동체를 알리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대교회의 사역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2세기 이후 초대교회에서의 소그룹

예수님의 부활이후에 초대교회는 소그룹인 가정교회의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 성령체험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공동체의 모임장소였다. 1세기 당시의 가옥구조를 보면 가정교회의 규모를 추측 할 수 있다.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체인구의 20퍼센트 미만이며, 1세기 평균적인 가옥의 크기를 감안할 때 가정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12-15명 선이었으며 전체 교회는 80-90명 정도였을 것이다.⁶³⁾ 초대교회의 구조는 주로 가정단위의 소그룹 공동체였으며 이러한 가정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계속된 박해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들이 연합된 전체 교회의 모임을 가졌다. 존 보건(John N. Vaughan)은 이러한 연합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유세비우스(Eusebius)만이 로마의 7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이미 존재하던 건물들을 파괴하는 사례들을 11가지나 언급한다. 여러 가지 훌륭한 기록들에 따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장소를 모임 장소로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가정, 다락방, 성전, 회당, 언덕, 학교, 이교도 사원 그리고 특별히 공회당 등이 포함된다. 콘스탄틴 대제의 통치 이전에도 오랫동안 교회들은 묘지, 회합 장소, 예배설비들을 소유하고 있었다.⁶⁴⁾

빌 벡헴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교회의 본질은 두 날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곧 '회중적인 환경'으로 모였고 '공동체 셀 환경'으로 흩어졌음을 지적한다.⁶⁵⁾ 이렇듯 초대교회는 소그룹과 대그룹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2. 중세시대의 소그룹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는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정 중심의 소그룹 보다는 성당 중심의 대그룹의 모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기독교역사가인 곤잘레스(Justo L. Gonzalez)는 콘스탄틴의 개종이후에 기독교의 예배가 황실의 의

63) Robert Banks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49.

64) John N. Vaughan, *The Large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5), 41. Bill Beckhem, *제2의 종교개혁*, 158.에서 재인용.

65) Ibid.

식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향불사용이나 사치스런 예복, 그리고 주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몸짓들이 기독교 예배의 일부가 되었다고 지적한다.⁶⁶⁾ 윌리스턴 워커(Williston Walker)는 교회가 개별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성직자와 건물을 중심으로 교구(parish) 체제로 바꾸어 가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⁶⁷⁾

이러한 교회의 변화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교회와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볼프강 짐손(Wolfgang Simson)은 “교회는 박해받는 비밀 종교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종교로 바뀌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이교도적 관행들을 비판하고 물리치는 선지자적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⁶⁸⁾고 지적한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는 거대화되고 제도화가 되면서 성장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과 역동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도원 운동은 은둔과 금욕적 삶을 추구하였으며 강력한 규율을 가진 공동체로 발전되었다.⁶⁹⁾ 대부분의 수도원은 공동체를 위한 소그룹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존 맬리슨은 “번영했지만 생명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탄력을 잃고 있었던 중세 교회 때 성 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i)와 같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며, 훈련하고 봉사했다”고 지적한다. 그 외에 중세시대에 소그룹은 ‘공동생활 형제단’, ‘왈도파’ 그리고 ‘롤라르드파’ 등의 그룹들을 통하여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⁷⁰⁾ 이들은 교회안의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하여 신앙적인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다. 소그룹은 중세의 암흑시기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종교개혁 시대의 소그룹

종교개혁 이후에 소그룹의 중요성이 점차 재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주로 교황의 권위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경이 보급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성경연구반 같은 소그룹 모임들이

66)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199, 200.

67)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212,213.

68)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13.

69)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176-182.

70) Robert Banks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77.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도록 하였다.⁷¹⁾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신학과 함께 교회의 구조도 개혁하려고 하였다. 루터의 '독일 미사와 예배규정'(The German Mass and Order of Service)의 서문에서 세 종류의 예배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이고 두 번째는 독일의 예전(liturgy)이고 세 번째는 신약성서의 가정교회의 예배와 유사한 예배이다.⁷²⁾ 그러나 실제로 루터는 세 번째의 가정교회에서 행해졌던 것과 같은 예배를 실행하지는 못했다.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는 종교개혁이 계속되면서 개혁에 참여하였던 교회들이 영적 생명력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루터가 낙담에 빠졌음을 지적한다.

루터에게서 발견된 이 감정을 크게 악화시킨 또 다른 것은 재세례파라는 현상이었다. ...종략... 그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없었던 훌륭한 삶이 그들의 교회에는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로 그들에게 반응했다. 한편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재세례파에 대항하도록 훈련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재세례파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교회에도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한데 모아 일종의 교회 속의 교회(inner church)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⁷³⁾

루터는 결국 재세례파에 대항하게 되면서 자신이 염원했던 소그룹중심의 교회 구조의 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소그룹을 이루어 갈수 있는 신학적인 토대를 이루어 놓은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난 재세례파 운동은(Anabaptist movement) 좀 더 초대교회에 가까운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초기 재세례파의 태동은 유아세례에 대한 신학적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유아세례의 효용성을 부정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성인에게 주는 세례만을 인정했다. 이런 행동은 곧 취리히 시의회와의 반대와 압력을 가져왔고 점차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71)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60.

72) Bill Beckhem, *제2의 종교개혁*, 168.

73) D. M. Lloyd-Jones, "Ecclesiola in Ecclesia", *Approaches to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Paper from the Puritan and Reformed Studies Conference, 1965), 60-61. Bill Beckhem, *제2의 종교개혁*, 169. 에서 재인용.

다. 그 과정에서 재세례파는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었고 동시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⁷⁴⁾

박해 속에서 재세례파는 소그룹으로 모이고 공동생활을 지향하였다. 그들은 공동으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으며 선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했다. 그들의 예배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졌고 서로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실시하고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전형적인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이었다.⁷⁵⁾ 재세례파 운동은 그들의 신학적 배경과는 별도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근대시대의 소그룹

종교개혁이후에 소그룹을 통한 여러 가지 기독교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필립 슈페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의 경건주의(Pietism) 운동을 들 수 있다.⁷⁶⁾ 슈페너는 개인적인 경건을 중요시 하였고 그를 위해 상호책임성을 갖는 소그룹을 형성할 것을 권면하였다. 슈페너는 1670년부터 “경건자의 모임”을 가졌으며 일주일에 두 번씩 남녀가 함께 만났으며 주일설교나 경건서적,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토론하였다.⁷⁷⁾

그러나 슈페너의 경건주의는 정통 신학자들과 교권적지도자들 사이에 반대를 일으켰다. 루터파 신학자들은 경건주의가 개인경건에 치중한 나머지 교회와 목회를 밀

74)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505-507.

75) Robert Banks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81.

76) 그의 대표적인 책 ‘경건의 욕망’(pia desideria)에는 여섯 가지의 ‘경건한 욕망’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욕망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집회나 가정모임에서 경건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보다 분명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다. 이 모임을 슈페너는 “경건자의 모임”(collegia pietatis)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욕망은 신도들에게 이러한 집회에서 책임있는 일을 부여함으로써 신자가 만인제사장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욕망은 기독교 본질이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적인 경험과 삶 전체를 통한 태도임을 아는 것이다. 네 번째 욕망은 세 번째 욕망을 실현할 때 삶에 수많은 논쟁이 있는데 이때 자비심을 가지고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욕망은 목회자의 훈련이 냉혹한 논리적 정통신학을 넘어서서 경건한 책과 훈련에 빠지며 목회의 실제적인 활동과 경험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욕망은 이렇게 훈련받은 성직자들이 배출되어 참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감화시키고 양육하는 본래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Justo L. Gonzalez, *기독교 사상사*, Vol. 3,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8), 393-395.

77) Bill Beckhem, *제2의 종교개혁*, 171.

쳐내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공격하였다. 또한 당시에 정통 개신교에서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선교에 대하여서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는 반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슈페너는 불신자의 개종을 가장 위대한 위임명령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이러한 갈등과 반대 속에서 슈페너의 경건주의는 힘을 잃어 갔지만, 경건주의적 정신은 이후에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Zinzendorf, 1700-1760)의 모라비안 운동과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경건주의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소그룹 운동은 존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이다. 웨슬리는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서로 죄를 고백하고 격려하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소그룹을 활용하였다. 웨슬리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밴드(band)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속회(class meeting)를 제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여기서 속회는 감리교 운동의 핵심적인 그룹이 되었는데 이웃에 사는 10명 내지는 12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매주 한 시간 정도 모임을 가졌다.⁷⁸⁾ 볼프강 짐손은 감리교운동의 발전과 의의를 이렇게 서술했다.

감리교 운동은 이러한 집단들의 네트워크 곧 학습반의 연합체를 통해 서로서로 연결되었다.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던 1768년에는 40개의 '속회'(circuits)와 2만 7,341명의 신자들이 감리교에 속해 있었다. 1800년대에 들면서는 영국사람 30명중 한 사람이 감리교에 속해 있었다. ... 증략... 그는 루터가 소원했지만 결코 시도해 보지 못한 것, 곧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되고 가정교회의 구조 안에서 엄청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⁷⁹⁾

분명히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18세기 영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중심에는 '속회'라는 소그룹이 있었다. 벡헴은 그 동안의 소그룹 운동과는 다르게 웨슬리가 성공한 이유는 "이 소그룹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웨슬리에게 그 속회 모임은 곧 진정한 교회였고, 따라서 그의 최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소그룹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권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었다"⁸⁰⁾라고 설명한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소그룹의 신학을 적용하여 속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변

78) John Mallison, *생동감있는 소그룹메뉴얼*, 30.

79)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129.

80) Bill Beckhem, *제2의 종교개혁*, 175.

화되며 나아가 사회와 문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웨슬리의 소그룹과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5. 현대시대의 소그룹

웨슬리 이후에 소그룹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존 교회에 소그룹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소그룹 운동을 통하여 다양한 그리스도인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근대에 나타난 기독교 운동인 YMCA나 도덕재무장 운동(moral rearmament movement) 등은 모두 소그룹 운동의 산물이었다.⁸¹⁾

교회성장학자인 레이너(Tom Rainer)는 현대교회사에 있어서 소그룹의 실례의 하나로 중국의 교회를 들고 있다.

소그룹 파워(위력)의 현대판 모델은 중국교회이다.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대 모든 선교사들을 축출하고 약 100만 명 가량에 이르는 중국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서 세력을 잡았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제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30년 후에 3,000만에서 1억에 이르는 신자의 수로 늘었다는 것이다.(현재 그리스도인은 6,000만에서 1억으로 추정한다. - 역자 주) 중국교회는 100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건물들을 가지지 못했고, 소수의 훈련된 목회자들과 소수의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다. 30년의 박해생활에서도 기도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생존해 왔던 것이다.⁸²⁾

중국교회의 성장은 초대교회가 박해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성장한 것과 비견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이 있었다.

소그룹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조용기 목사의 가정구역조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용기 목사의 가정구역조직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성장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구역을 만든 교회론적 배경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세포분열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⁸³⁾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구역조직은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81)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61.

82) Tom S. Rainer, *교회성장교과서*,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3), 348.

83) 조용기, *나의 교회성장이야기* (서울: 서울말씀사, 2005), 121.

한국정서에 맞는 성공적인 소그룹 운영이었으며 한국교회에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벡헴은 그의 책 *제2의 종교개혁*의 헌사에서 “조용기, 그는 성공적인 가정 셀 그룹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⁸⁴⁾고 서술한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조직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메타교회’(metachurch)나 ‘셀교회’, 그리고 ‘G12’와 같은 다른 소그룹 운동에 영향을 끼친 개척모델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교회성장에 있어서 소그룹의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 예가 될 것이다.

현대교회에 있어서 또 다른 역동적인 소그룹 모델을 찾자면 대학 캠퍼스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단체들이다. 예수전도단(YWAM)⁸⁵⁾, 네비게이토(navigators)⁸⁶⁾, JOY⁸⁷⁾, IVP⁸⁸⁾, CCC⁸⁹⁾, UBF⁹⁰⁾ 등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소그룹은 주로 ‘전도성경공부’(EBS)⁹¹⁾와 ‘그룹성경공부’(GBS)⁹²⁾로 나뉘지며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교제와 돌봄이 있는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선교단체들은 대부분 매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교회(local-church)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넓은 의미에서 지역교회와 함께 동행 하는 병행교회(para-church)⁹³⁾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소그룹의 중요성과 신학이 재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교회내의 소그룹과 영적 성장의 관계

소그룹은 구약성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교

84) Bill Beckhem, *제2의 종교개혁*, 5.

85) Youth With A Mission의 약자.

86) 한국에서는 네비게이토 선교회로 알려져 있다.

87)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의 약자. 한국에서는 ‘조이선교회’로 알려져 있다.

88)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의 약자. 한국에서는 ‘한국 기독교학생회’로 활동하고 있다.

89) Campus Crusade for Christ의 약자. 한국에서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로 활동하고 있다.

90)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의 약자. 한국에서는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로 알려져 있다.

91) Evangelical Bible Study의 약자. 주로 불신자와 구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이다.

92) Group Bible Study의 약자.

93) 실제로는 영어식 발음으로 ‘파라처치’라는 용어로 많이 불리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교회와 대응하는 한글 용어로 ‘병행교회’를 사용한다.

회 안에 존재해 왔다. 그러나 소그룹이 목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어난 현상들이다. 여기서는 목회현장에서의 소그룹에 대한 유형ⁿ들을 특히, 교회와 관계하여 살펴보고 목회에 있어서 소그룹이 가진 장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소그룹의 유형

현재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를 모든 유형별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종류의 소그룹 유형을 '교회'⁹⁴⁾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해 보고자 한다. 소그룹과 관련한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목회현장은 바로 교회 자체이기 때문이다. 김민섭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세 가지 소그룹 모델을 제시한다.⁹⁵⁾ 이를 기초로 본 연구자는 소그룹을 교회와의 관계에 따라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Church with Small Groups)

이런 유형에서는 소그룹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조직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 이 유형은 가장 전형적이 형태이며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의 '구역회'나 감리교회의 '속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⁹⁶⁾ 보통 이런 소그룹은 참여를 권유받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소그룹 안에서의 친교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전체교회에 속한 한 조직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더 많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목회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소그룹이 통제되며 소그룹 공동체가 가진 가능성과 자율성에 제한을 받기 쉽다. 즉, 소그룹만으로 볼 때, 교회의 목회적인 구심력은 강하게 되겠지만, 소그룹이 가진 다양하고 역동적인 원심력은 다소 약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94) 여기서 교회는 실제 현존하는 지역교회나 제도권 교회 같은 목회현장을 말한다.

95) 김민섭, "성공적인 소그룹사역을 위한 교회론의 조정" (박사학위논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3), 49-58.

96) 출발점을 보면 구역이나 속회 등도 역동성 있는 소그룹의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교회의 구조 속에 동화되어 가면서 점차 제도화되어 가는 점이 없지 않다.

나. 소그룹 중심의 교회(Church of Small Groups)

이러한 유형은 소그룹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차지한다. “교회 속에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만 소그룹이 곧 교회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은 대그룹 집회와 함께 소그룹모임도 그와 같은 비중을 둔다. 소그룹의 지도자는 작은 목회자로 받아들여지고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여 돌봄과 양육과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한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원형적인 모델이 된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는 대표적으로 서울 사랑의 교회⁹⁷⁾나 시카고의 윌로우크릭 교회⁹⁸⁾를 들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텍사스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⁹⁹⁾도 소그룹 중심의 교회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그룹이 곧 교회(Church as Small Group)

이러한 유형은 소그룹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것이다. 보통 이런 교회를 셀 교회(cell church)라고 부르는데 셀에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즉 예배, 교제, 교육, 제자훈련, 기도, 봉사, 전도 등이 이루어진다.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는 “셀교회를 보여주는 ‘C’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셀(cell), 회중(congregation), 그리고 축제(celebration)이다”

97) 서울에 소재한 사랑의교회는 1978년 창립한 이래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 크게 성장한 교회이다. 사랑의 교회의 소그룹은 다락방으로 불려 지는데 주로 성경공부를 통한 양육과 훈련에 중점을 둔다.

98)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윌로우크릭교회는 1975년에 이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 특히, 드라마, 음악, 비디오, 춤, 성경적인 메시지 등의 문화코드에 복음을 담아 소개하는 ‘구도자 예배’(seeker services)로 유명하다. 1992년에 담임목사인 빌 하이벨스의 목회적 전환을 통해 교인 누구나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1992년 이후 소그룹이 있는 교회(a church with small groups)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a church of small groups)로 거듭나게 된다. 10-15 퍼센트의 성도들이 소그룹 활동을 하던 교회에서 1만 8,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2,700개의 소그룹에 연결되는 곳으로 바뀌었다.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1-15.

99) 텍사스 휴스턴의 서울침례교회는 한인이민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정교회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가정교회가 자율성을 가지며 평신도의 지도력이 최대한 발휘된다. 이러한 면에서는 ‘소그룹이 곧 교회’의 유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회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그룹의 역할이 셀교회와 같이 확장중심보다는 이민교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돌봄과 나눔 중심의 확대가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본 연구자는 두 번째 유형에 더 가깝다고 본다.

라고 소개한다.¹⁰⁰⁾ 기존의 교회에서 '회중'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셀교회에서는 소그룹인 '셀'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다.

셀교회의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의 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나 콜롬비아의 International Charismatic Mission Church를 들 수 있다.¹⁰¹⁾ 그런데, 셀 교회는 어떤 특정한 형태로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다.¹⁰²⁾ 셀교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가져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 교회와는 별개의 소그룹(Small Group which is different from Church)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이는 소그룹으로 교회 안에 소속될 수도 있고 교회와는 별도로 운영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적인 영향력보다는 목적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 소그룹이라는 것이다.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모이는 팀(team)이 되기도 하고, 취미나 관심이 같은 사람들 간에 동호모임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헌신적인 신앙적 삶을 위해 언약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언약 그룹(Covenant Group)¹⁰³⁾이나 전도를 위해 누구나 참여하여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전도양육소그룹(Evangelism and Nurturing Group)¹⁰⁴⁾ 등도 특수한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된다. 또한 미국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치유 및 회복그룹(Healing and Recovery Group)¹⁰⁵⁾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100) Ralph W. Jr.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261.

101) 랄프네이버는 수년간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로렌스 콩 목사와 더불어 '셀교회'라는 획기적인 실험을 시작했고 그 결과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두었다. 1986년에 셀교회로 시작된 FCBC는 지금 만 명 이상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ICM선교교회의 G-12 모델도 성공적인 셀 그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에 의해 창립된 이교회는 1991년 70개의 소그룹에서 현재 2만 여개가 넘는 소그룹을 가진 교회로 급성장했다.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68.

102) 한 예로, 셀교회보다 좀 더 급진적인 가정교회 운동을 주장하는 볼프강 짐손은 '가정교회'로의 교회구조전환에 있어서 셀교회는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지도자 중심의 모델이며 셀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206-208.

103) 현재 미국 교회에서 일반화된 세렌디피티(serendipity)같은 모델이나 예수전도단의 DTS(Disciple Training Study) 등이 언약그룹의 대표적 모델이다.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67.

104)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볼 수 있는 EBS 모임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대표적 모델로는 알파코스를 들 수 있는데 영구 런던의 홀리 트리니티 브롬턴(Holy Trinity Brompton)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전 세계 모든 교파의 약 10,000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71.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감리교회의 속회는 처음에는 ‘교회’(성공회)와는 별도로 운영되었다가 나중에 ‘교회’(감리교)의 중요한 중심역할을 하였다. 감리교회는 속회중심의 교회로 성장했는데, 이후에 속회가 쇠퇴하면서 교회내의 지역예배나 성경공부 조직으로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2. 소그룹의 특징

소그룹은 그 다양한 종류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기에 사회학과 교육학분야 등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기독교적 소그룹이 가진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소그룹은 인격적이다

소그룹에서는 서로가 인격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날 수 있다.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그룹은 대그룹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인격적인 만남과 상호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인격적 대화가 가능한 소그룹구조가 유용하다”¹⁰⁵⁾고 지적한다. 소그룹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까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나. 소그룹은 유연하다

소그룹은 그 특성상 적은 인원의 모임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룹모임의 장소나 시간 등을 바꾸는데 유연하다. 또한 사역에 있어서도 특정 활동이나 목표 등을 이루려고 할 때 소그룹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그룹은 늘 변화무쌍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조직이 될 수 있다.

105) 미국에서만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 혹은 가정문제 등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지지그룹”(supporting group)이 50만 개 이상 된다.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75.

106)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161.

다. 소그룹은 복음전파에 효과적이다

소그룹은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소그룹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수 있으며 친밀하게 형성된 관계는 공동체를 더 강하게 묶어준다. 이렇게 관계성을 중심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 된다. 또한 소그룹 전체가 전도에 동참할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이클 맥(Michael C. Mack)은 “소그룹이 함께 복음을 증거 할 때 상승효과가 있다.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서 전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멤버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동원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¹⁰⁷⁾라고 지적한다.

라. 소그룹은 수적 성장에 효과적이다

생명력 있는 소그룹은 살아있는 세포와 같이 2, 4, 8 혹은 더 이상 분열되는 것처럼 증가할 수 있다.¹⁰⁸⁾ 실제로 셀교회, 그리고 G-12와 같이 번식을 중시하는 소그룹들이 이러한 배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⁰⁹⁾ 짐존은 배가성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처음 12명이 1개로 시작된 소그룹이 매년 배가성장을 한다면, 5년마다 25퍼센트의 탈락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20년 후에는 165,888개의 소그룹과 1,990,656명의 사람들이 된다.”¹¹⁰⁾

마. 목회적 돌봄에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목회현장에서 한 목회자가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한계가 있다. 소그룹 단위의 구조는 지도력을 위임하여 더 효과적인 돌봄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을 위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었던 내용은 소그룹이 가진 이러한 장점을 보여준다(출 18:13-26). 따라서 오늘날 제도권의 교회들에서도 소그룹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워드 스나이더의 지적처럼 “소그룹

107) Michael C. Mack, *The Synergy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53.

108)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62.

109) 셀교회나 지투엘브가 단순히 번식위주의 모델은 아니다. 지투엘브를 시작한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는 하나님은 숫자와 성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하며 ‘번식’은 개인적 ‘성결’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소그룹과 그 리더의 성결을 추구하는 자세가 셀교회나 지투엘브 같은 유형의 교회에 필요하다. Joel Comiskey, *지투엘브 이야기*, 정진우 역 (개정판: 서울: NCD, 2001), 94.

110)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175-176.

들은 교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조와 사역의 기본 요소인 것이다.”¹¹¹⁾

제 4 절 소그룹에서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핵심원리

소그룹은 교회의 질적인 영역으로서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빌 도나휴와 러스 로빈슨(Bill Donahue, Russ Robinson)은 그들의 공저인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에서 소그룹이 영적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네 가지 핵심원리를 보여주었다.¹¹²⁾ 그 네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소그룹의 영적 성장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진정한 관계위에 세워지는 소그룹

소그룹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진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울은 교회를 유기체적인 몸으로 비유하여 각 사람이 그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¹¹³⁾

이제 시작된 소그룹이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이 있어야 한다. 첫째, 소그룹 안에서 자기를 노출함으로 서로 알고 알려지는 것이다. 둘째, 돌봄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셋째, 겸손하여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다. 봉사를 통하여 겸손을 보이며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어야 한다. 넷째, 진실만을 말하여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는 것이다.¹¹⁴⁾ 다섯째, 격려를 통하여 서로 축하하고 축하를 받아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소그룹은 서로가 칭찬하며 세워주는 문화를 통해 진실한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

111)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63.

112)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85.

113) 롬12:4-5, 고전12:14-27, 엡4:16 등을 참고.

114) 성서에서 '권면하다'는 헬라어 '누테테오'(noutheteeo)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교정, 권면의 뜻이 일차적이지만, 가르침, 격려, 교화 등의 의미로서 사용된다.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103.

2. 진리와 삶이 만나는 소그룹

서로가 관계성이 형성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서로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소그룹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하나는, 소그룹이 성경공부 중심으로만 흘러가다 보면 교리나 '정답'에 치우칠 때가 많다. 성경공부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그룹이 교제중심이 되면서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져서 신앙의 원칙을 배우지 못하는 사교적 모임이 될 수 있다. 도나휴와 로빈슨은 이런 양극단을 넘어서는 '변화중심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말씀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초점을 주는 그룹과는 대조적으로, 변화중심그룹은 삶에 지식을, 지식에 삶을 연결한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룹은 오직 나에 관한 것, 또는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에 관한 진리를 탐구한다. 구성원들은 정답을 찾는 데 집착하지 않으며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 정직한 구성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다. 공동체는 단순히 수용과 동의가 아니라, 진실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¹¹⁵⁾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소그룹은 서로가 가진 관계성 위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헌신과 서로간의 책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건강한 갈등이 있는 소그룹

소그룹이 진실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진리를 서로 말하기 시작하게 될 때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된다. 갈등은 일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기는 때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영적 성장은 소그룹의 갈등의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때 이루어진다. 이때 소그룹 지도자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여 변화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갈등을 해소해야 할 분명한

115)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119.

이유를 아는 것이다.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은 죄에 직면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¹¹⁶⁾ 둘째, 그룹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화해를 위해 서로가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셋째, 갈등해소를 위해 기도와 감정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상대방이 대화를 받아들일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넷째, 갈등해소를 위해 준비한대로 직접 대면해야 한다. 헨리 클라우드(Henry Cloud)와 존 타운센드 (John Townsend)는 그룹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대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지적과 진실을 당연히 정상으로 여긴다. 항상 그룹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모임의 안전하고 유익하고 당연한 일부로 삼는다. 그럴 때 멤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서로 지적할 용기를 더 얻는다. 둘째, 사건 자체보다 습성을 다룬다. 좋은 그룹은 멤버 본인이나 그룹이나 외부 관계에 명백한 문제를 야기하는 반복적 습성을 인식한다. 셋째, 정죄도 없고 애매한 표현도 없다. 멤버들은 가혹히 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자기도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룹은 모호하지 않게 사안의 정곡을 찌른다. 넷째, 구속(救贖)으로 이끈다. 문제의 직접적 거론과 아울러 그룹은 멤버에게 고백과 회개 그리고 멤버들과의 관계 회복을 간곡히 권한다. 다섯째, 견제한다. 그룹이 문제나 죄를 거론하고 멤버의 관점을 이해하고 지원과 자원을 베풀되 동시에 적절한 한계와 결과를 정해야 한다.¹¹⁷⁾

다섯째, 성숙한 갈등해결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나휴와 러빈슨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그룹 구성원들이 고백과 용서와 화해라는 성경적인 3박자를 갖추어야 한다”¹¹⁸⁾라고 지적한다.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용서는 상대방을 다시금 세워주는 것이다. 나아가 그룹이 서로가 화해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116)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143.

117) Henry Cloud an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윤종석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127-130.

118)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155.

4. 균형있는 목양이 있는 소그룹

소그룹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돌봄의 사역과 훈련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의 목양을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포도주를 만드시고 수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기도 하는 등 사람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르침과 권면으로, 때로는 훈계로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셨다.

돌봄의 사역은 그룹 구성원들의 필요에 대해 서로가 민감하고 서로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서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공동체적 돌봄이 있었다(행 2:44-45).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필요가 채워질 때 소그룹은 더욱 활성화 되어 영적성정을 촉진하게 된다.

훈련의 사역은 그룹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치관과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a)이다. 영어성경은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¹¹⁹⁾이다.

두 번역 모두에 사용된 중요한 동사를 보면 가서(go), 제자를 삼아(make a disciples), 세례를 주고(baptizing), 가르쳐 지키게 하라(teaching to obey)이다. 여기서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제자를 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결국 제자는 가르침 받은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돌봄과 훈련의 사역이 균형을 이룰 때 소그룹은 영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119) NIV, Mt 28:19-20a.

제 4 장

웨슬리의 속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속회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속한 한국감리교회의 기초 소그룹인 속회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영적 성장에 관한 웨슬리의 신학과 소그룹에 대한 교회구조의 전환이 만난 역사적인 전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에서 전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속회를 시작하라. 새 속회를 시작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¹²⁰⁾고 하였다. 18세기 당시 웨슬리가 영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속회였다. 웨슬리 이후에 속회는 각 교파를 떠나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기독교 단체나 지역 교회 등에서 소그룹이 형성되도록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에는 속회보다는 소그룹이나 구역예배, 혹은 셀 그룹 교회의 개념이 익숙하지만 교회 안에 소그룹을 제도화 하여 실행한 것은 웨슬리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웨슬리 당시의 속회를 돌아보고 속회의 배경과 성장, 그리고 변천에 대해서 고찰 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감리교회에서의 속회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한국감리교회의 속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웨슬리의 감리교운동과 속회

1. 웨슬리 속회의 배경

속회는 역동성 있는 소그룹으로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속회는 무(無)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 나타난 소그룹에 대

120) George G. Hunter, *교회성장과 목회전략*, 김선도 역 (서울: 광림, 1987), 171.

한 전통과 당시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탄생 되었다. 속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속회에 영향을 준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역사적 배경

웨슬리의 속회는 몇 가지 역사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받았다. 첫째, 독일의 경건주의로부터 시작된 소그룹 운동이다. 슈페너가 시작한 “교회안의 작은 교회” 운동은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비제도적인 경건한 소그룹 운동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¹²¹⁾ 교회 갱신을 위해서는 ‘경건한 모임’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건주의의 강조점이었다.

웨슬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건주의 운동은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주의였다. 웨슬리는 1735년 미국선교를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이때 배에 타고 있던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때 웨슬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졌다는 것에 충격과 도전을 받는다.¹²²⁾

또 1738년 5월 25일 올더스게이트(Aldersgate)거리의 한 모임에서 회심의 체험을 했을 때 영향을 준 것도 모라비안 교도였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경건을 추구하고 소그룹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이것이 훗날 웨슬리가 속회와 감리교의 소그룹 조직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비록, 나중에는 모라비안 교도와 결별을 고했지만 초기의 웨슬리의 신앙과 회심에 영향을 끼친 것은 경건주의 전통을 가진 모라비안주의였다.¹²³⁾

둘째, 영국 성공회의 신도회 운동(religious society movement)이 웨슬리의 속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신도회 운동은 안토니 호네크(Anthony Horneck)의 주도 하에 생성되었다. 호네크에 의한 신도회의 회원은 16세 이상, 영국 성공회 교인으로 정해졌으며 성공회 성직자 한 사람이 “감독”으로 선정되어, 영적인 지도에 책임을 지고 신입회원들의 허입을 인준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121)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9), 26.

122)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665.

123) 웨슬리는 모라비안주의가 첫째, 진젠도르프 개인을 너무 숭배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신앙의 자세가 수동적이고 신비주의적이기에 결별하게 된다. Ibid., *기독교회사*, 667.

통해 실천적인 경건을 장려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두 명의 청지기가 선발되었는데 이를 통해 평신도의 지도력이 부상되었고 더욱 신도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후 신도회는 자기반성을 통한 완전과 성결의 추구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된다. 웨슬리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 소그룹을 조직하기도 하였다.¹²⁴⁾ 이렇게 영국 국교회의 신도회 운동의 선례들은 웨슬리에게 속회의 목적과 구조를 세워갈 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나. 사회적 상황

18세기 초 영국의 국교회와 비국교도는 모두 전체적으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합리주의에서 파생한 이신론(deism:자연신론)¹²⁵⁾과 같은 신학적 입장이 팽배하여 기독교의 모든 신비적, 초자연적 요소들을 기독교에서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기독교가 더 이상 영적 체험의 생명력을 잃고 단지 교리적 동의나 윤리, 도덕적 조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는 고 교회(high church)의 형태를 가지면서 일반 서민과 가난한 대중들의 영적, 도덕적 요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격리된 제도에 불과했다.¹²⁶⁾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도 사업은 거의 없었으며 하층민은 영적 결핍 상태에 있었다. 대중의 오락은 저속했고 문맹이 만연했다. 법은 무자비하게 집행되었고, 감옥은 질병과 불법의 저장소였다. 술 취함은 영국 역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승을 부렸다. 더구나 영국은 18세기말 나라를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화하는 산업혁명의 전야를 맞고 있었다.¹²⁷⁾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였다. 속회는 이러한 신앙적 절박함 속

124) 박용호, “한국교회속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2000), 13-15.

125) 이신론은 이성애 의해 종교를 재해석하고 성서의 특수계시를 부인하며 종교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시계제조업자(watch maker)로 생각한다. 곧, 시계제조업자가 일단 시계를 만든 다음에 전혀 간섭하지 않아도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신 다음 전혀 역사를 섭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것이다. 김홍기,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서울: 예루살렘, 1992), 205.

126) 이후정,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한국웨슬리신학회, 1999), 7.

127)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661-662.

에서 탄생되었다. 저명한 속회연구자인 왓슨(David L. Watson)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속회모임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들은 서로 제자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참여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매주 한 번씩 함께 모여 서로에게 직고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매주의 속회는 감리회 신도회의 한가지로서 웨슬리는 그것을 감리회 운동의 '원동력'으로 생각하였다.¹²⁸⁾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회, 그리고 무기력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력 있는 교회로 갱신하려 할 때 속회와 같이 서로 책임을 지는 소그룹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2. 웨슬리의 신학과 속회

속회에는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신학적인 배경이 숨겨져 있다. 하나는 성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론이다. 웨슬리에게 있어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각각의 신학적 배경과 속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웨슬리의 성화론과 속회

웨슬리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⁹⁾ 웨슬리는 개혁주의적 전통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과 오직 은혜(sola gratia)의 원칙 위에 서있음과 동시에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가르침으로 그 전통을 넘어서고 있다.¹³⁰⁾ 웨슬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

128) David L.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한경수 역 (인천: 주안교회, 1993), 31.

129) 웨슬리는 "완전에 대하여" 라는 설교에서 성화에 특징을 열거하였다. 성화란, 1.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3.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4.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다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5. 마음으로도나 행동으로도나 의롭게 되는 것이다. 6.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7.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다. 8.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찬송과 감사의 제자로 그리스도께 드린다. 9.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Melvin E. Dieter 외,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IVP, 1991), 22.

130) Melvin E. Dieter 외,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16.

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웨슬리는 참 종교는 죄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총만으로 채움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안의 새 생명은 칭의를 통해 죄를 사함 받게 해줄 뿐 아니라, 성화를 통해 종생에 이르게 한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을 창조한다.¹³¹⁾

웨슬리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신학보다는 실천적인 신학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holiness of heart and life)의 형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였다. 그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대로 걷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perfect love of God and neighbor)'을 의미한다. 따라서 웨슬리의 신학은 거룩한 삶의 형성을 위한 훈련으로서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을 필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³²⁾ 웨슬리에게 있어서 속회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홍기가 "처음부터 속회의 목적은 단지 행정적인 조직이나 양적성장(growth)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 훈련이라는 질적성숙(maturity)을 도모하는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동기에 있었다"¹³³⁾고 지적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나. 웨슬리의 교회론과 속회

웨슬리의 교회론은 경건주의와 영국 국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는 두 전통의 요소가 서로 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동전과 같이 두 개의 양면을 가지는데, 한 면은 역사적 제도로서의 교회이고 다른 한 면은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그는 제도적인 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후자를 더 중시하였다.

초기의 감리교도들은 모두 영국 국교회의 교인들로서 다른 교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감리교 신도회(Methodist Society)의 입회조건에는 어떤

131) Ibid, 17-19.

132)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KMC, 2004), 96-97.

133) 김홍기, *감리교회사* (서울: KMC, 2003), 241.

특별한 교회의 교리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다만 “죄로부터 구원받고 다가올 진노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to be saved from there sin and to free from the wrath to come) 진정한 소원뿐이었다. 이런 점은 당시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을 갱신하려는 감리교도들의 순수한 동기를 보여준다.¹³⁴⁾

웨슬리는 성서적인 교회를 꿈꾸었는데 그것은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 즉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커크 패트릭(Dow Kirkpatrick)은 웨슬리의 교회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웨슬리는 진정한 교회(true church)의 본질을 제도와 형식보다는 내용과 기능 면에서 추구하였다. 웨슬리는 교회를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사역, 즉 선교적 행동으로서 정의하려고 했다. 교회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복음전도:evangelism), 성례전이 집행되고(예배:worship),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고 성례전이 바르게 받아지는(훈련:discipline) ‘신자들의 공동체’(company of faithful men)다.¹³⁵⁾

그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복음적인 기구로서 감리교 신도회(society)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속회를 포함한 다른 감리교 조직의 구조는 웨슬리의 교회론에서 나온 실천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3. 웨슬리의 속회의 특징

속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해를 위해 당시 웨슬리의 감리교 조직과 속회의 운영과 규칙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웨슬리 감리교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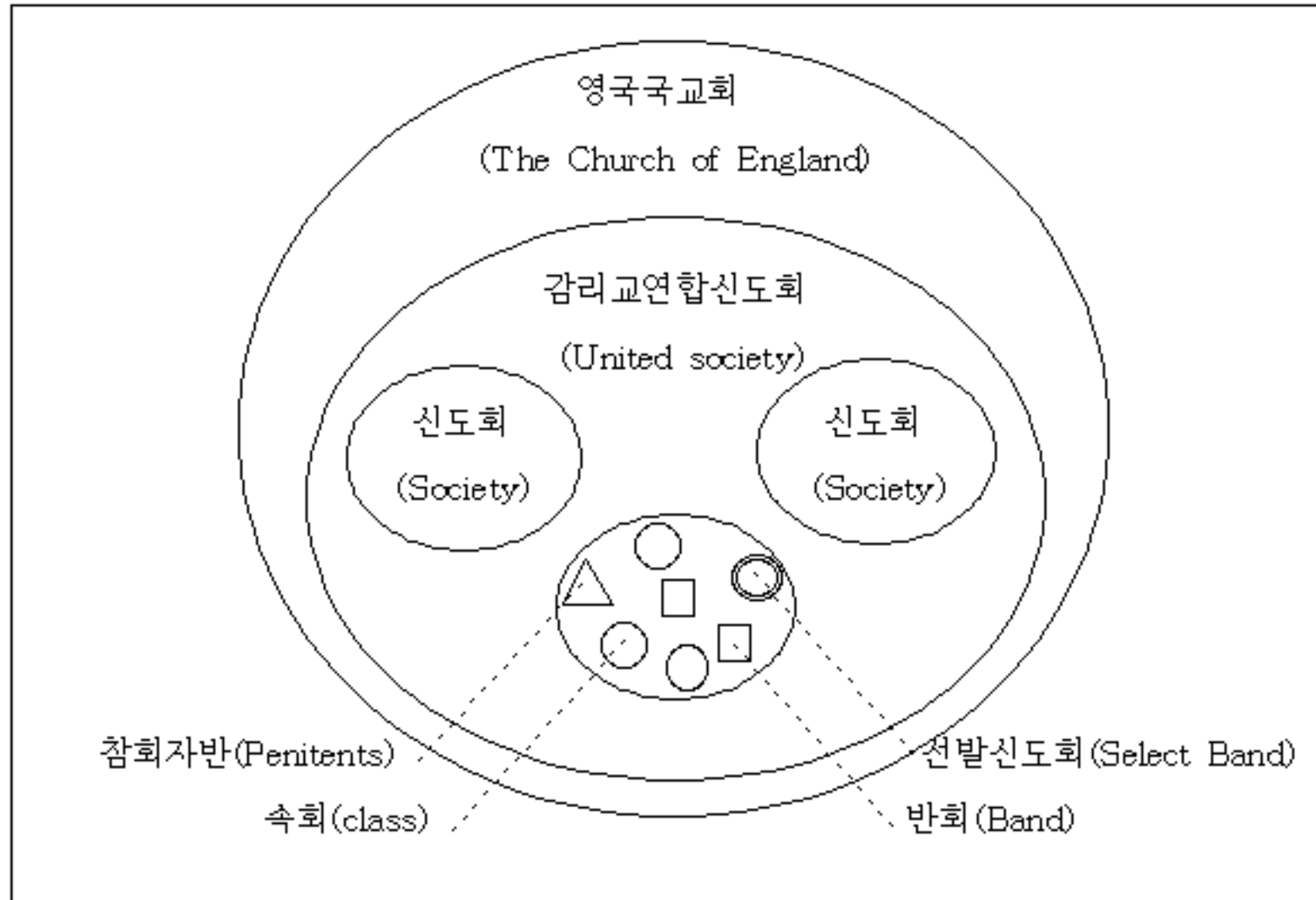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의 중심에는 속회가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조직이 맞물려 구성되었다. 당시 감리교 연합 신도회(Methodist United society)는 모든 감리교도들의 연합그룹을 말하는데 이 안에 큰 지역별로 신도회(Society)가 있었다. 각 신도회 안에

134) 김홍기, *감리교회사*, 91.

135) Dow Kirkpatrick, ed., *The Doctrine of the Church* (Epworth: Abingdon Press, 1964), 24-25.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91.에서 재인용.

는 선발신도회(Select Band), 반회(Band), 참회자반(Penitents), 속회(Class)가 있었다.
다음은 웨슬리 당시의 감리교 조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웨슬리 당시의 감리교조직 구성도¹³⁶⁾



최초의 감리교 신도회는 웨슬리와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가 1739년에 시작한 브리스톨 신도회로 간주된다. 연합신도회는 늘어나는 신도회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1743년 5월 10일에 결성되었다. 이후로부터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감리교 신도회들은 하나의 '연합체'(connection)로 결성되었다.¹³⁷⁾ 초기의 신도회는 국교회의 주일예배에 충실히 참여하고 주일 저녁 시간과 매일 아침 5시에 설교예배로 모였으며, 속회와 반회는 주간의 평일 저녁 시간에 모였다. 감리교 신도회는 성결한 삶을 위한 규칙, 즉 연합 신도회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성결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구원의

136)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86.

137) Ibid., 159-160.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를 돕고 훈련하기 위해 연합한 신앙공동체였다.¹³⁸⁾

반회는 속회와는 다르게 내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죄의 상호 고백과 영혼에 대한 상호 엄격한 감독을 통한 신앙 고백적 영성 훈련 모임(confessional group)으로 운영되었다. 반회는 상호 고백의 훈련을 통해서 서로의 영혼을 철저히 감독하는 돌봄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반회는 5-10명 정도로 구성되고, 나이와 성별 그리고 기혼자와 미혼자로 구분되어 상호 고백이 가능한 성격으로 만들어졌다.¹³⁹⁾

반회는 속회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속회가 신도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반회의 가입은 신도회의 자격조건으로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반회의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 선출하였지만, 속회의 지도자는 임명되었다.¹⁴⁰⁾

선발 신도회는 반회보다 더 제한된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신도들의 '선별모임'과 같은 것이었다. 웨슬리는 신도회 가운데서 보다 높은 신앙지도를 받기 원하는 무리들을 선별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에 한 시간 정도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이루는데 현저한 발전을 보인 사람들이다. 웨슬리는 이들에게 잡다한 규율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각자 마음에 간직한 최선의 규율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다.¹⁴¹⁾

참회자반은 신도회 안에서 처음에 은혜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다가 서서히 유혹에 빠져 태만해지고 죄를 범하는 낙심자 또는 낙오자들을 위한 모임이다. 이들은 참회자반으로 따로 모이면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매주일 저녁에 따로 신앙훈련을 가졌다.¹⁴²⁾

나. 속회의 형성

1742년부터 신도회는 속회와 반회로 나누어졌는데 속회가 생겨나게 된 것은 우

138)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65-166.

139) Ibid, 177-178.

140) David L.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60.

141) 김외식, *현대교회와 영성목회* (서울: 감신대출판부, 1994), 188.

142)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84.

연한 계기를 통해서이다. 당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신도회를 관리하는 일과 이들을 위한 영적훈련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었다. 웨슬리는 브리스톨 신도회를 위해 집회장소를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웨슬리는 빚을 지고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포이(Foy)라고 알려진 은퇴한 선장이 부채를 갚기 위해 1주일에 1페니씩 내자는 제안을 했고 직접 11명의 회원을 맡아서 모금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뢰할만한 사람들이 11명씩 회원을 방문하여 헌금을 모으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각 회원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사정과 영적상태를 알게 된 웨슬리는 모금을 위한 방문모임을 발전시켜 신도회를 돌보는 목회적 제도로 채택하게 된다.

그 이후로 이 모임을 '속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속회는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한 지도자의 돌봄에 맡겨졌다. 이 지도자는 속장(class leader)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속회 제도는 모든 신도회로 급속히 적용되고 발전시켜 나갔으며 많은 결실을 보게 된다. 1742년 말에 신도회는 여러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져 완벽하게 제도화되고 감리교 신도회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위한 핵심기구로 정착되었다.¹⁴³⁾

다. 속회의 목적

속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왓슨(David L. Watson)의 지적처럼 "속도원들이 그들의 믿음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속으로 흘렀고 그들의 사회적 상황에 뚜렷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¹⁴⁴⁾ '깨달은' 죄인들로서 출발을 하던지 완전한 사랑의 선물을 받아서든지, 반회 내에 모임을 가지든지 또는 선발 신도회 내에서 모임을 가지더라도, 모든 감리교인들은 일주일에 한번은 그들 속회의 속도원으로 그들의 제자 됨을 직고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¹⁴⁵⁾ 따라서 속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속회 구성원의 영적인 성장이었다. 목회적인 감독과 전도는 이차적인 속회의 결실이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기는 웨슬리의 속회가 가진 공동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¹⁴⁶⁾

143)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66-169.

144) David L.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28.

145) Ibid, 199.

웨슬리는 이 속회를 통해 공동의 성화(sanctification)를 훈련하게 하였다. 중세 신비주의가 말씀보다는 영적체험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위험성과, 개인주의적 영성을 강조하는 위험성을 웨슬리는 지적하면서, 속회공동체를 통해 영성을 훈련하는 일을 강조하였다.

즉, 이는 속회가 영적 성장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이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속회의 규칙

속회는 속장의 인도를 따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속장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영적 생활 경험에 대해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영적성찰을 묻는 속장의 질문은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유혹을 받았나?”, “어떻게 물리쳤나?”,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있는가?”, “숨기기를 원하는 비밀이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따라 각 속도원들이 돌아가면서 반성과 간증을 하였다. 그 후에 속장이 충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다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속장이 각 속도원들을 위해 묵회기도를 한 후 마쳤다.¹⁴⁷⁾

웨슬리는 충실한 속회 출석자들에게 3개월마다 회원표(ticket)를 주었다. 이 표는 3개월마다 회원의 자격을 조사하는 수단이고, 3개월 마다 열리는 애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새 회원에게는 3개월의 수련기간을 충실히 거친 후에 첫 번째 표가 주어졌다. 회원표는 연합 신도회의 세 가지 규칙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졌는데 세 가지 규칙이란 첫째, 모든 악을 피하고, 둘째, 모든 선을 행하고, 셋째, 모든 은혜의 방편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표 발행이 중지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속회의 추방을 의미했다. 또한 불가피한 이유 없이 3회 결석하면 속회명부에서 제명되었다.¹⁴⁸⁾ 이러한 속회의 엄격한 규율은 당시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교회적인 갱신을 이루려고 했던 감리교 운동의 진지함을 보여준다. 이런 엄격한 규칙이 실행되면서

146) 김홍기,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165.

147) 김홍기, “초기감리교회의 조직화와 속회 중심의 영성훈련,” *신학과 세계* 40 (2000), 85-98.

148) David L.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72.

초기에는 많은 속도원들이 즐거워졌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규칙들이 사람들을 각성하게 하고 속도원들을 정예화 시키게 되면서 속회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마. 속장의 책임

속회에 있어서 속장의 지도력이 가장 중요하였다. 속장은 속도원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평신도 목회자였다. 속회는 초기에 속장이 각 속도원들을 방문하는 방식에서, 곧 모든 속도원이 한 곳에 모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졌다.

속장의 기본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모든 속도원을 방문하여 만난다. 둘째, 속도원의 영혼의 형편을 조사한다. 셋째, 권면하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지원하여 구제하며 기도해준다. 넷째, 모은 헌금을 유사(有事)에게 전달한다. 다섯째, 속도원의 모든 형편을 목사나 설교자에게 보고한다.¹⁴⁹⁾

바. 속회의 영적 성장요소

속회를 보면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직고'(accountability)¹⁵⁰⁾는 속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였다. 속회의 회원들은 한주간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서로 나누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속회는 내적인 탐구의 과정보다는 상호간의 응답과 후원의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¹⁵¹⁾ 이 '직고'야말로 속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⁵²⁾ 그런데 '직고'는 언제나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닐 콜(Neil Cole)은 "삶이

149) 유사(steward)는 감리교 안에서 재정을 관리하였다.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69-170.

150) 직고(直告)는 한자의 의미 그대로 '바르게 고하기' 혹은 '곧바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accountability'를 단순히 '직고'라고 했을 때 의미가 축소되는 감이 없지 않다. 이 '직고'라에 대해 웨슬리 연구자인 김홍기는 "모든 속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간증형식으로 고백하고 나눔으로서 서로 권면하고, 돌보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임의식(accountability)을 가졌다. 이러한 성화의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인 'accountability'를 '직고'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한다. 김홍기, *감리교회사*, 241.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는 'accountability'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아직 대중적으로 이해가 쉬운 '직고'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51) David L.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63.

152)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웨슬리의 속회에서 직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

변화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서로를 책임지고 돌아보는 친밀한 관계¹⁵³⁾라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바로 속회가 이러한 공동체의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공동체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욕구를 채워준다. 즉, '포함'(inclusion)과 '통제'(control)와 '애정'(affection)에 대한 요구이다. 공동체가 발전되면서 서로의 감정과 정서를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표현은 개인적 성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적 성숙을 성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속도원들은 매주 그들의 종교적 체험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요구 받았으며 이러한 일을 통해 그들은 자신과 자기인식에서 성장을 하였다.¹⁵⁴⁾

둘째, 속회는 평신도 속장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속장은 대부분 임명되었기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웨슬리의 목회적인 감독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였다. 당시 거의 모든 속장은 훈련된 평신도 가운데서 배출되었는데, 평신도인 속장의 목회적인 분담과 참여는 결과적으로 평신도의 지도력을 향상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속회의 운영은 이렇게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인 속장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조엘 코미스키가 "셀교회의 성공은 평신도들을 지도자들로 바꾸어 놓는데 달려있다. 그것이 가정 셀그룹의 폭발적 성공 뒤에 숨어있는 힘이다"¹⁵⁵⁾라고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 또한 상호보완적으로 훈련된 속장의 지도력 안에서 건강하게 운영되는 속회를 통하여 더 많은 수의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

이 묘사한다.

웨슬리의 셀그룹 모델인 속회모임은 고도로 조직화된 이벤트와 같은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라. 그들은 비록 한 시간 동안 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 모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을 기초로 하였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평범하게 자신들이 시험받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농가에서 모임을 시작할 계획이나 낙심한 사람을 심방할 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룹들은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개방된 나눔의 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였다.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교제하는 동안 죄인들의 마음들이 녹아내렸던 것이다.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128.

153) Nei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편집부 역 (서울: NCD, 2004), 147.

154) David L.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06-207.

155)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 88.

다.

셋째, 속회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엄격한 제한성을 가진 모임이었다. 속회의 목적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실천하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감리교 신도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속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속회는 단순히 자율적이거나 친교적인 모임, 혹은 피상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규율과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규율을 통하여 속도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속도원들을 정예화 함으로 스스로 질적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4. 감리교 속회의 변천

이후에 속회는 수천, 수만의 감리교 신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돌보고 양육하며 훈련시키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편이 되었다. 속회는 영국과 미국에서,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교회갱신과 사회봉사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속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본 연구자는 속회의 부흥과 쇠퇴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한국감리교회의 속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영국교회의 속회

20세기 초까지 속회는 영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며 감리교 운동이 확장되는데 기여하였다. 당시 속회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하였는데, 첫째, 목회적인 심방과 훈련이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감리교인수가 증가하였다. 둘째, 성도간의 교제가 있었다. 셋째, 회심을 통한 개종이 일어났다.¹⁵⁶⁾

스나이더에 의하면 감리교회 순회구역과 신도회원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웨슬리 생전에 모인 최종 연회는 1790년 브리스톨에서 모였다. 그 당시 감리교회 신도수는 영국에 71,463명, 북미에 43,230명, 기타 지역에 5,350명 등 합계 120,073명의 신도가 되었다.¹⁵⁷⁾

그런데 1910년 이후 영국의 속회제도는 약해지기 시작했다. 속회제도의 약화는

156) 채부리, *감리교회와 속회* (서울: 감리회교육국, 1983), 14-16.

157) 박춘화, *감리교회와 속회* (서울: 보이스사, 1995), 104.

필연적으로 감리교회의 둔화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속회 안에서의 '직고'의 상실이다. 직고는 상호책임을 위한 공동체적인 행위였지만, 이것이 속회 안에서 상실되게 되면서 점차 생명력을 잃은 종교적인 모임이 되어 갔다. 왓슨은 속회의 쇠퇴의 원인으로 "실천적인 선한 행위와 은총의 수단들을 배제한 채 속회 안에서 행해졌던 내적인 경건에 대한 몰입이 증가되었다"¹⁵⁸⁾라고 지적한다.

둘째, 속회지도자들의 약화이다. 늘어나는 감리교단과 비교할 때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가 부족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비해 속회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속회운영의 핵심은 훈련된 속장이 세워지는 것인데 성숙한 속장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감리교 전체에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곧, 속회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지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셋째, 속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웨슬리 시대에는 속회가 전도도 하고 교제도 했지만, 웨슬리 사후에는 전도가 약화되었으며 열정적으로 개종자를 얻고 훈련을 시켰던 웨슬리만한 지도자가 없었다.¹⁵⁹⁾

나. 미국교회의 속회

1769년 영국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 속회를 전했으며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평신도들에 의해서 많은 수의 속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개척시대에는 동네가 적었기 때문에 전도자는 순회하면서 속회를 돌보고 그 전도자가 부재 시에는 속장이 속도원을 훈련시켰는데 이러한 속회들이 마지막에는 교회가 되었다. 이처럼 속회가 세워지면서 다른 어느 교파보다도 감리교회가 빨리 부흥되었다. 속회에서 하는 일은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방법과 감리교회의 통치 방법을 배우고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¹⁶⁰⁾

그러나 미국교회에서 속회도 점차 쇠퇴하게 되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속도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 지면서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교회가 점차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

158) David L.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30.

159) 채부리, *감리교회와 속회*, 17.

160) Ibid., 17-18.

하던 속회의 목적이 불분명 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속회는 그 고유의 활력을 잃게 된 것이다.

둘째, 속회보다 교회학교 중심의 교회구조가 나타내게 된 것이다. 주일학교가 지식을 가르치면서 당시 회중들을 계몽하고 교회들의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신 삶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개종시키는 일도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회는 약화된 것이다.

셋째, 감독들도 속회제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회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얻지 못한 것이다. 감독들인 사역에 바쁜 나머지 속회를 잘 돌보지 않았다. 웨슬리는 항상 모든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회라고 하였지만 지도자들의 소홀로 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¹⁶¹⁾ 이와 같은 원인들을 요약하자면 원래 속회가 추구했던 목적인 '거룩한 삶'과 '사랑의 실천'이 약화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직교'의 중단으로 교회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그 권위가 상실되게 되면서 속회는 제도화된 교회의 한 조직으로 퇴화된 것이다.

한편, 영국과 미국에서 속회가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벡헴은 소그룹 운동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그룹 운동은 두 가지 점에서 쇠퇴하게 되었다. 첫째는, 전통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이 새로운 운동을 짓밟아 버렸다. ... 이 운동이 약화된 두 번째 요인은 소그룹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그룹의 본질에 대한 부적절한 신학적 이해에 있다. 그들은 소그룹들이 실제로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치는데 실패했다.¹⁶²⁾

따라서 속회가 오늘날 다시금 그 본질적인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교회로부터의 제도적인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속도원들이 소그룹으로서 속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161) 채부리, *감리교회와 속회*, 19-20.

162) Bill Beckhem, *제2의 종교개혁*, 177.

제 2 절 한국 감리교회 속회 고찰

웨슬리의 감리교는 한국교회사 특히 한국 감리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홍기는 웨슬리식의 경건주의가 한국교회사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63)

제도적 행정적으로는 한국개신교는 장로교가 지배하여 왔다. 그래서 장로제도를 안 받아들인 한국개신교가 없다. ...중략... 그러나 신학적으로 한국 개신교 100년사는 웨슬리식 경건주의로 점철되어 왔다. 초창기 아펜젤러가 감리교 선교사였을 뿐 아니라 언더우드도 장로교 선교사였지만 웨슬리식 경건주의 유형의 선교사였다. 또한 지금까지 100년 역사속에서 웨슬리식 새벽기도회, 웨슬리식 철야기도회, 웨슬리식 부흥사경회, 웨슬리식 속회예배 혹은 구역예배를 안 드리는 한국 개신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웨슬리의 경건주의가 한국개신교를 지배하여 왔다.

위의 지적과 같이 감리교 속회는 한국교회내의 속회나 구역 예배와 같은 소그룹 모임을 태동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웨슬리의 속회가 한국감리교에서 어떻게 자리났으며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웨슬리의 원래의 속회제도와 차이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하여 현재 한국감리교회의 속회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한국감리교회와 속회의 역사

한국개신교회의 태동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1883년 9월 당시 개화론자였던 민영익이 이끄는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던 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때 민영익은 미국감리교 목사이면서 해외 선교부 임원으로 있던 가우처(John. F. Goucher)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때 민영익은 조선에 선교사의 필요성을 알렸고 이에 가우처는 미 감리회감독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해외선교부에 알리고 '5천 달러'를 한국선교비로 헌금하며 한국선교에 착수하게 된다.¹⁶⁴⁾ 이후에 1884년 알렌(Horace N. Allen)

163) 김홍기,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223-224.

164) 이덕주, *한국감리교회사*, 교사교육 전문과정, 교육국 편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1996), 27.

이 한국에 와서 의료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신학형성과 신앙유형을 결정지은 선교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에 도착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¹⁶⁵⁾ 이후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1887년 10월 9일 한국인을 위한 첫 공중예배를 자기 집에서 드렸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의 창립이 된다. 이상의 과정은 미국 북감리교회를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미국의 남감리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당시 미국에 있었던 윤치호가 에머리 대학 총장에게 한국선교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1896년 리드(C. F. Reid)목사가 한국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 초창기의(1890-1953) 속회

한국감리교회의 속회가 선교사의 선교과정 중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다만, 첫 번째 감리교회의 설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한국감리교회에서 1889년 처음으로 지방회를 조직하였고 여기서 감리교회의 제반 운영방침과 경비 등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때 속회에 관한 논의가 더불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¹⁶⁶⁾

채부리¹⁶⁷⁾ 박사는 양주삼 감독이 쓴 ‘조선 남감리교회 30년 기념보’를 인용하여 “1897년 5월 2일에 이덕 박사가 고양읍에서 장년 24인과 유년 3인에게 세례를 시한 후에 교회를 조직하고 유사와 속장을 임명하였으니”¹⁶⁸⁾라는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속회가 남감리교의 첫 번째 교회의 설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이 기술한 상동교회 약사를 보면 “속장은 강성환, 심상완, 손호석, 심완기, 장사연, 김진우, 리국혁, 도명운, 전봉운, 박원식, 김권홍, 리도성이요”¹⁶⁹⁾라는 기사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감리교회의 초기에 속회제도가 활발

165) 김홍기,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224.

166) 광안련,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53.

167) 미 연합감리교회의 한국선교사로 채부리는 한글 이름이며 본명은 Finis Jeffery이다.

168) 채부리, *감리교회와 속회*, 21.

169) 송길섭, *상동교회 90년사* (서울: 상동교회출판부, 1979), 294.

히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위니(Irene Swinney)선교사는 한국교회의 속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그 당시 속도들은 속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속회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1920년경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통치로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속회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¹⁷⁰⁾ 이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도 속회가 뿌리를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행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당시 감리교회가 순회전도를 주로 했다는 점과 여전도사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부녀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교육에 치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⁷¹⁾ 이는 각 지역마다 속회가 생겨났고 이를 운영할 여전도사나 속장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속회가 한국감리교회 초창기(1890-1953)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데에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속회가 전통적으로 공동체 성을 중시하였던 한국인의 문화와 잘 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개화기, 일제침략, 한국 전쟁 등 어렵고 격동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확대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과 부락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지역별로 속회가 형성되었기에 속도원간의 동질성이 잘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 혼돈기(1953-1958)의 속회

1953년 이후 한국감리교회에서는 그 당시 속회에 대해 네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첫째, 감리교 교육국의 지도자들이나 교계의 지도자들 중에 점차 속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다. 둘째, 그때 까지 속회공과가 부재하였다. 셋째, 속장들에 대한 속도원들의 존경이 상실되기 시작했다. 넷째, 속회모임의 의미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감리교 지도자들은 1953년과 1958년에 거쳐 속회공과를 출판하게 된다. 처음에는 속회공과를 따로 출간하지 않고 감리교회의 월간지인 기독교세계에 포함해서 활용하였으나 나중에 독립적인 공과로 발행되게 된다.¹⁷²⁾ 이 시기 부터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는 동일한 공과를 사용하기 시작

170) 채부리, *감리교회와 속회*, 25.

171) 안행래, “속회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 학원, 풀러신학교, 1984), 23.

했다.

다. 성장기(1970-1990)의 속회

본격적인 속회공과의 출판이후 감리교회는 속회를 중요시했고 계속해서 속회관련 서적들이 출판되게 되었다. 개교회 주보에는 속회 보고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한국감리교회의 성장을 보면, 1976년에 1,700교회에 40만 신도였던 것이 선교 100주년이 되던 1985년에는 3,000교회에 100만 신도로 성장하였다. 이후 1990년의 자료에는 3,800교회에 115만 신도가 되었다.¹⁷³⁾

한편 이 때에도 속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기도 했다. 첫째, 감리교회가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목회흐름으로 변하면서 속회가 외적성장을 위주로 하는 교회조직으로 전락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속회가 주로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남자속장이 부족하게 되었기에 남성들이 속회구성원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셋째, 속회공과가 성경공부만을 위한 책으로 편성되어 지루함을 가져다 준 것이다. 넷째, 점차 속회가 웨슬리 당시의 삶을 나누는 모습에서 예배중심의 모임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속회를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속장 교육이 부재하여 피동적인 속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¹⁷⁴⁾

라. 1991년 이후의 속회

1990년 이후 한국감리교회의 성장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한다. 1991년 4.7퍼센트, 1992년 3.5퍼센트, 1993년 2.8퍼센트, 1994년 6.5퍼센트, 1995년 3.7퍼센트, 1996년 2.1퍼센트, 1997년 2.5퍼센트¹⁷⁵⁾ 이러한 성장둔화의 요인 가운데 속회의 정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70년대 이후로 속회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만 현재까지 한국감리교회 안에서 개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72) 장천기, "초기 감리교회의 영적책임을 회복한 속회지도 모형연구" (박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2001), 42.

173)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7천교회 2백만 신도운동 사업계획안* (서울: 감리회선교국, 1991), 18, 29.

174) 장천기, "초기 감리교회의 영적책임을 회복한 속회지도 모형연구," 43-44.

175)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감리교 21세기 선교를 준비하며* (서울: 감리회선교국, 1999), 71.

이상과 같이 한국감리교회의 역사에서 속회의 변천을 살펴보았는데, 길지 않은 한국감리교회의 성장과정에서 속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감리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회의 활성화가 뒤따라야 한다.

2. 한국 감리교 속회의 현재

본 연구에서 제시할 속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하여 현재 일반적인 한국 감리교회의 속회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속회의 구조와 운영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는 영국과 미국의 속회가 유명무실해진 것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규칙을 따라 운영되고 있다. 첫째, 속회구성원은 평균 5-9명 정도로 두고 있으며 10명이 되면 속회를 나누게 되는데 이는 웨슬리가 제안한 12명의 속도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동시에 10명 이상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5-7명 정도의 속회공동체는 좀 더 안정감을 주고 서로가 삶을 나누기가 용이하며 새신자가 왔을 때 속장이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수가 된다.¹⁷⁶⁾

둘째,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는 보통 금요일에 모임을 갖는데, 여성들은 주로 낮 시간에 모임을 갖고 남성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만난다. 속회진행은 주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성경공부를 위해 속장과는 별도로 가르치는 인도자가 있다.

셋째,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는 불신자 전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불신자를 속회에 참여하도록 하며 교제와 돌봄을 통하여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를 통한 전도방식이다.

넷째, 속장 및 인도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보통 주일에 모임을 갖는데 속장교육을 통하여 평신도 지도력이 활성화 되면서 목회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발한 목회적 참여를 통해 교회 성장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176) Dongchan Park, "A study on Uniqueness of John Wesley's Class Meeting & It's Application to Korean Church" (D.min, diss., Wesley Theological Seminary, 1995), 46.

다섯째, 속장은 속회를 총괄하면서 목회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교인명부를 작성하고, 심방록을 기록하며, 매 속회마다 속회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속회 때의 헌금을 집계하고 전달하는 일을 한다.

등록교인 8만여 명의 세계적인 규모의 감리교회로 성장한 서울의 광림교회의 경우 원로목사인 김선도 감독은 교회성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속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광림교회는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의 참여가 강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키워냈으며 이를 실현하는 장으로 속회를 운영했다. 결과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발한 속회활동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다.¹⁷⁷⁾

나. 웨슬리의 감리교 속회와의 차이점

웨슬리의 속회제도가 한국감리교회 안에서 정착되어 운영되기는 했지만, 몇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비단 한국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 감리교회와의 차이점과도 유사하다.

첫째, 속도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변화이다.¹⁷⁸⁾ 웨슬리의 속회는 엄격한 규율과 책임을 통하여 운영되었다. 철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회원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속도원들로 하여금 속회에 소속여부를 분명히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반면에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는 이러한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 약간의 규칙은 있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속도원이 가져야할 책임도 크게 묻지 않게 되었다.

둘째, 속회의 중요 기능이었던 '직고(accountability)'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웨슬리의 속회운영의 중심에는 서로가 자신의 삶을 고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는 '직고'가 있었다. 반면에 한국감리교회의 속회에 있어서는 '직고'보다는 성경공부와 교제가 중심에 있다. 물론 속회 안에서 서로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웨슬리 당시의 직고와는 여전히 다름이 있다. 이렇듯 서로간의 영적인 삶을 나누는 '직고'가 사라졌다는 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공동

177) 안행래, "속회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3.

178) Dongchan Park, "A study on Uniqueness of John Wesley's Class Meeting & It's Application to Korean Church," 48-50.

체적인 삶이 점차로 희박하여 짐을 보여준다.¹⁷⁹⁾

셋째, 속장제도의 변화이다. 한국감리교회는 2명의 서로 다른 지도자로 속회를 운영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교리와 운영원리를 명시해 놓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속장'은 웨슬리 속회의 속장과 유사하며 속회모임 전체를 관리하며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인도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하는데 주로 속회공과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¹⁸⁰⁾

넷째, 속회에 대한 목회자의 역할이 달라졌다. 웨슬리 당시의 목회자는 속장의 보고를 통하여 속도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만나서 돌보고 지도하는 것이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은 주로 속회인도자들에게 속회공과를 가르치는 것에 시간을 쏟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특성상 목회자의 사역이 과중되기에 속회에 많은 시간과 역량을 쏟기에 힘든 것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¹⁸¹⁾

다. 한국감리교 속회의 문제점과 진단

이상과 같이 살펴본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는 현재의 한국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 비록 웨슬리 당시의 속회와 달라진 점도 있지만 그러한 변화는 계속되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속회가 원래적으로 목적하는 영적 성장의 측면과 소그룹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감리교회의 속회는 몇 가지 문제점과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장애물들은 실상 서로가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만 따로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면서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속회에서 영적 성장에 대한 목적이 상실 내지는 약화된 것이다. 웨슬리 속회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바로 영적 성장이었다. 웨슬리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속회를 활용하였지만, 지금의 속회는 원래적 정신을 잃어가고 있

179) 본 연구자가 보기엔 이러한 현상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기에 부끄러워하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속회에서 나눈 이야기에 대한 비밀보장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80)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KMC, 2006), 86-87.

181)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는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등과 주일 낮 예배와 저녁예배 등의 모임을 준비하기에도 바쁘며 여기에 심방까지 겹쳐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따라서 원래가 영적 성장을 위해 고안된 '직고'가 상실되었고 속회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약화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속회와 병행되었던 반회나 선발 신도회와 같은 조직들이 없어지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각성과 목회자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속회제도의 약화를 가져온 원인으로 교회의 세속화 현상을 들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의 급성장한 한국교회는 분명 양적으로 성장했고 이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질적인 성장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인의 수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좁은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교회의 질을 희생하고 있다는 경향이 있다. 물론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오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말한바 '값싼 은혜(cheap grace)'의 복음으로 교회가 질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균형이 없이 교회가 교인들의 '표면적 필요'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둘 다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속회에서도 나타나서 속회가 속도원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피상적이거나 지루함을 주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속회가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교회내의 한 조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속회는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이 넘쳐흘렀던 조직이었지만, 지금의 한국감리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의 관리조직이나 구역의 예배형태로 전환되었다. 속회는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지만, 지금은 거의 지역별 성경공부나 예배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 친교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삶의 중심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이 또한 피상적인 만남이 되기 쉽다. 따라서 속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그룹 공동체로서 속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속회가 가진 소그룹으로서의 장점들이 십분 활용되게 될 것이다.

넷째, 속회공과가 속회의 변화와 성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이를 가르치는 인도자에 대한 교육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한국감리교회의 속회공과는 성경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면으로 보면 짜임새 있고 충실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감리교회의 모든 속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

미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은 속도원들의 상황¹⁸²⁾, 특히 다양한 영적 성장의 상태에 적용하기에는 단순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몇몇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속회공과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인도자도 속회공과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다 보면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속회가 되기가 쉽다. 그리고 인도자를 위한 교육의 주된 내용이 속회공과를 가르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단순히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성숙하고 유능한 인도자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발전적인 속회를 위해서는 속도원들의 영적 성장의 상황들을 반영하여 속회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적합한 속회공과와 이를 지도하여 속도원들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182) 속도원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속회가 형성되는 지역이나 문화적인 배경, 속도원들의 사회적 위치와 연령대, 그리고 성별의 차이 등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제 5 장

영적 성장을 위한 속회조직의 적용

앞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초공동체인 소그룹의 장점을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웨슬리의 속회는 이렇게 영적 성장을 지향하는 소그룹의 성공적인 모델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속회는 원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질적인 측면의 성장에 주된 목적을 두었으나 속회의 질적인 변화가 결국 감리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양적인 성장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의 개개인의 성장은 곧 교회의 건강을 가져오고 나아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져오게 됨을 시사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감리교회의 속회에 대한 새로운 구조와 이에 따른 단계별 커리큘럼¹⁸³⁾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영적 성장과 속회조직의 구조

오늘날의 한국교회 속회제도는 웨슬리 당시의 속회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하나는 원래의 속회가 가진 영적 성장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지역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조직에 더 가깝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웨슬리 당시 속회와 더불어 있으면서 속회를 보완하거나 지원했던 여러 소그룹과 조직들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속회의 회복이 한국감리교회의 변화와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183) 여기서 커리큘럼을 넓은 의미로 교과교재의 내용과 함께 속회모임의 시간 안배, 초점, 진행방식, 운영 등을 포괄한 의미로 사용한다.

고 확신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한 가지 종류의 속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오늘날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신자, 구도자, 혹은 기존신자들의 관심과 필요 그리고 신앙적인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을 수용하고 신앙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조직이 필요하다.¹⁸⁴⁾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목적이 불신자로 하여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리처드 피스(Richard V. Peace)는 “오늘날 전도자들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만 양산할 뿐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제대로 길러 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과정전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만남전도’를 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¹⁸⁵⁾이라고 지적했다. 피스의 말처럼 진정한 회심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절한 과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한국감리교회의 현실과 목회환경을 감안한다면 셀그룹 교회와 같이 ‘소그룹이 곧 교회’인 구조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¹⁸⁶⁾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감리교회가 다시금 재도약을 가지기 위해서는 칼 조지(Carl F. George)의 메타교회(metachurch)¹⁸⁷⁾의 유동적인 구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타교회의 이론에 의하면 기존의 지역교회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내적으로 역동성을 가진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가능한 것이다.¹⁸⁸⁾ 따라서 속회와 같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의 구조가

184) 본 연구자는 비유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감리교회의 속회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한 반에 모인 것과 같다고 본다.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원리로 속회를 바라볼 때 적어도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185)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김태곤 역 (서울: 좋은씨앗, 2001), 373.

186) 한국감리교회는 개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개교회는 ‘지방’이라는 좀 더 큰 지역단위에 소속되어 있고 각각의 지방은 감리사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여러 개의 지방이 모여 하나의 ‘연회’를 이루고 있는데 각 연회는 감독이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명된다. 이러한 감리교조직은 주로 중앙 집중적인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며 개교회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교회의 울타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적인 조직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187) 접두사 ‘메타’는 메타볼리즘(metabolism, 신진대사), 메타모르포시스(metamorphosis, 변형), 메타피지컬(metaphysical, 형이상학적인)에서 처럼 ‘변화’의 뜻을 지닌다. 이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metanoia)는 ‘마음을 바꾸다’ 혹은 ‘회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Carl F. George, *섬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80.

조정되고 모든 교인이 하나 이상의 속회에 속해서 제자화 되는 교회가 가능하다.¹⁸⁹⁾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기존의 속회를 세 개의 단계별 속회¹⁹⁰⁾로 나누기를 제안한다. 첫째가 가족속회이고 둘째가 목양속회이며 셋째가 제자속회이다.¹⁹¹⁾ 이 세 단계의 속회는 각각이 영적 성장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릭 워렌(Rick Warren)의 지적처럼 제자를 키우는 과정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주력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¹⁹²⁾ 앞으로의 연구진행을 위해 세단계의 새로운 속회구조를 도표화 해 본다.

188) 칼 조지는 메타교회의 개념을 동물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성장을 쥐로부터 시작하여 고양이, 애완견, 마당개, 말, 코끼리, 공룡 등으로 몸집이 커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메타교회는 쥐에 비유되는 소그룹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룡과 같은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68-84.

189) 참고로 장학일 목사가 제시하고 실시한 밴드목회를 보면 오픈밴드(openband)와 클로즈밴드(closeband)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밴드는 웨슬리의 반회(Band)에서 착안한 소그룹조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밴드는 새신자와 초신자에게 적합하고 일정자격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 클로즈 밴드는 좀 더 장성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 적합하다. 장학일, *밴드로 들어가라*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8), 63-73.

190) 점차 한국교회의 목회환경이 다양해지고 창의적인 사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감리교회에서 속회(class meeting)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목회현장에 따라서 이 속회라는 명칭은 다른 현대적인 용어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계속해서 속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본 논문이 한국감리교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속회가 한국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된 용어이고 아직은 많은 감리교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논문은 기존의 속회라는 소그룹의 변화를 위한 원리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에 용어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원리가 같으면 명칭은 어떻게 부르던지 상관없이 없지만, 명칭이 다르더라도 기존의 속회와 변화가 없다면 이와 같은 명칭변화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자는 원래적인 용어로 '직교'와 '속도원'과 같은 오래된 교어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마치 여러 번역본이 있다하더라도 개역한글성경을 주로 인용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할 것이다.

191) 가족속회와 목양속회와 제자속회는 뒤로 갈수록 신앙의 성장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신앙성장의 단계만을 강조했다 때는 입문자속회, 추구자속회, 성숙자속회 등으로 명칭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사실 본 연구자가 정한 각각의 속회이름으로는 신앙의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단계가 하나의 계급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를 암시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192)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126.

<표 2> 세 단계의 속회구조 표

단계별 속회과정				
가족속회	→	목양속회	→	제자속회

1. 가족속회

가. 가족속회의 개요

가족속회는 새신자나 초신자가 교회에 안정되게 정착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족속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실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한 가족임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2장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권속’은 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속회에서는 속도원들을 한 가족과 같이 생각하여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며 지지하고 돌보아 주어 교회에 소속감을 부여하는 일에 주된 가치를 둔다. 영적 성장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와도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¹⁹³⁾

따라서 가족속회는 우선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어 몸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단계이다. 먼저 한 몸이 되어야 그 몸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다. 영적 성장은 먼저 신앙공동체에 대한 관계성과 친밀감을 경험할 때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나. 가족속회의 역할

가족속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다. 첫째, 가족속회는 새로운 성도들의 필요(need)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신자들이 교회를

193)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신앙공동체는 작은 지역교회일수도 있고 성경공부 모임이나 교회안에 속한 소그룹일 수도 있다.

찾게 될 때에 요구하는 것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필요와 관계된 것들이다. 가족속회는 이러한 필요들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해 주는 공동체의 삶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된다.

둘째, 가족속회는 새신자나 구도자들이 교회에 안정되게 정착하도록 돕는다. 가족속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여 문턱을 높이기보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려진 공동체이다. 가족속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관계성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먼저 속회에서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게 될 때 교회에 안정되게 정착할 확률이 높다.¹⁹⁴⁾

셋째, 가족속회는 속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나아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킨다. 소속감은 자기정체성과 연결된다. 특히, 인간소외의 현상이 문제되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속회를 통해서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기정체성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 가족속회의 운영방안

가족속회는 이제 예수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이나 기존의 신자이지만 교회에 새로 나오게 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가족속회의 커리큘럼의 기본적인 주기는 3년이다. 그러나 신앙경력이 있어서 먼저 다음 과정으로 가기를 원할 때 최소한 1년의 기간을 둔다. 반대로 3년 이상 출석한 성도들이라도 계속적으로 가족속회에 머무르고 싶다면 있을 수 있도록 한다.

가족속회에서는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과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사실상 가족속회는 개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194) 가족속회는 일반교회에서 운영하는 새신자반 혹은 새가족반과는 그 모임과 형태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가족속회는 주중에 교인들이 모이는 지역별 소그룹 모임이며 새신자나 이주해온 신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려진 공동체이다. 이와는 다르게 새신자반이나 새가족반은 새신자이면 모두 거쳐야 하는 4주 혹은 10주정도의 일정기간을 둔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대개 주일예배전후에 진행된다. 따라서 새신자반은 가족속회와는 별도의 모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자가 제시한 것은 목회환경에 따라 그리고 목회자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새신자들과 이주해온 신자들로 구성된 새신자반을 가족속회에 가입하기 이전의 예비속회과정으로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리를 이해하고 교회공동체에 헌신해가는 단계이다. 적어도 가족속회에서는 주일예배의 참석과 더불어 속회에 대한 소속과 참여, 그리고 헌금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헌신이 되고 난후에 자신이 더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다음단계의 속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목양속회

가. 목양속회의 개요

목양속회는 신앙공동체 소속되고 더 자라나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배움의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 신앙공동체 안에서 배움을 통해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많은 부분을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에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에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또한 바울도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롬 10:17). 이상과 같이 볼 때 배움의 단계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목양속회에서는 서로간의 관계성의 터전위에 그리스도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목양속회에서는 이전보다 속도원들의 적극적인 책임과 참여가 요구된다.

목양속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가 각각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가며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자라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지체는 힘을 키워가며 몸의 한 부분으로의 역할을 담당해 가게 된다.

나. 목양속회의 역할

목양속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돕는다. 첫째, 영적 성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씀연구와 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하도록 도와

준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며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어야 할 신앙공동체가 필요하다. 또한 목양속회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을 깨우치는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둘째, 성도들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할 수 있다. 목양속회는 소속된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하도록 한다.

다. 목양속회의 운영방안

목양속회는 교회에 정착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약속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해가는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가족속회와 달리 목양속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속회가 아니라 가족속회를 1년 이상 참여하여 검증을 거친 성도들이 목양속회의 서약을 함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목양속회에서도 커리큘럼의 기본적인 주기는 3년을 삼는다. 이 기간 보다 빨리 다음 단계인 제자속회로 갈수는 없으며 3년이 지나도 제자속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머물러야 한다.¹⁹⁵⁾ 그리고 본인이 계속 있기를 원할 때도 목양속회에 계속 있을 수 있다.

목양속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이를 삶의 적용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목양속회에서는 서로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워주어 영적 성장을 돕는다. 목양속회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한 모임이 되기에 속회의 참여와 더불어 교회봉사가 요구된다.

195) 여기서 자격은 각 단계의 속회 가입 시 요구되는 서약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주일성수를 잘 하지 못하고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은 가족속회에서 목양속회로 갈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교회의 전도와 선교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자속회에 들어가기 어렵다.

3. 제자속회

가. 제자속회의 개요

제자속회는 기본적인 영적 성장의 바탕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여기서의 실천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나타내는 사랑의 실현이다. 따라서 제자속회에서 말하는 실천은 좁은 의미로는 교회봉사나 전도활동 등이 되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속회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숙한 지체가 되어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단계이다. 이러한 속회를 통하여 속도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영성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자속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실천하였나?'와 '무엇이 변화되었나?'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제자속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변화는 영적인 성결을 추구하는 것으로 죄를 지양하며 선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웨슬리가 말한바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는 삶이다. 타인에 대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다른 제자를 삼아가는 것이다.

나. 제자속회의 역할

영적 성장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 제자속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 제자속회는 실천적 삶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기에 속회뿐만 아니라 교회전체에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 교회는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받는다. 또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장 할 수 있다. 제자속회는 헌신된 일꾼들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활력을 준다.

둘째, 제자속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증계명과 지상명령을 실천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영적인 성숙도가 각기 다른 성도들로 구성된 속회의 경우는 실천적 사역에만 집중하기가 어렵다. 단순히 많은 수 보다는 정예들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제자속회를 통해 앞으로 속회를 지도하고 관리할 만한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다. 가족속회와 목양속회를 거쳐 제자속회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의 지도자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엄격한 제자속회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된다.

다. 제자속회의 운영방안

제자속회는 성장한자로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보다 성육신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속회와 교회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제자속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가족속회를 거쳐 목양속회에서 적어도 3년 이상 훈련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제자속회별로 봉사나 전도 혹은 선교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웨슬리 당시의 속회에서 실천된 '직고'와 같은 고백과 권면의 행위가 속회에서 실천되도록 한다.

제 2 절 교회로서의 속회커리큘럼

위에서 제시한 세 단계의 속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속회마다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세 가지 속회의 커리큘럼은 속회의 특성에 따라 수준과 관심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신앙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지는 핵심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속회와 같은 소그룹의 기본 커리큘럼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이 세 단계의 속회에서 어떻게 분포하게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커리큘럼이 속회공과에 어떻게 반영되며 운영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볼 것이다.

1. 커리큘럼의 내용

론 니콜라스(Ron Nicholas)는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기초하여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적한다. 그것은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선교이다.¹⁹⁶⁾ 릭 워렌(Rick Warren)은 여기에 사역의 개념을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다섯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예배, 사역, 전도, 교제,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요약 할 수 있다.¹⁹⁷⁾

본 연구자는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교회의 목적이 속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속회는 '교회안의 작은 교회'이며 그 자체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가지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속회의 기본 커리큘럼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개개인의 영적 성장의 정도의 따라¹⁹⁸⁾ 각각의 핵심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순서가 바람직할 것이다. 속회의 커리큘럼의 전체 흐름을 첫 번째로 예배, 두 번째로 일치, 세 번째로 양육, 네 번째로 사역,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교의 순으로 정하는 것이다.¹⁹⁹⁾ 각각의 교회의 핵심 가치는 속회에서 이루어야 할 영적 성장의 전 영역을 총괄하고 있다.

가. 예배

속회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가 됨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며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자세가

196) Ron Nicholas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8), 26-27.

197)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0-124.

198) 속도원들의 영적인 성장을 측정하고 단계를 분별하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세 단계의 속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첫째, 목회자와 속장의 평가, 둘째, 속회서약서와 약속들에 대한 헌신도, 그리고 셋째, 교회봉사와 사역의 열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들 수 있다.

199)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핵심가치의 순서는 한 사람이 신자가 되어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이 자라갈 때 따라가는 단계와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세 단계의 속회를 전체의 영적 성장의 단계로 볼 때,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예배, 일치, 양육, 사역, 전도의 순서로 강조점을 둔 것이다. 그런데, 각 속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핵심가치에 대해 관심사가 다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실제적으로 속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맞춤교육은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성장의 단계와는 다르게 서로간의 은사가 달라서 관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 단계의 속회가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의 단계를 구분하여 커리큘럼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각 속회에서의 세밀한 지도는 결국, 속회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곧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속회에서는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와 삶에 대해 배우고 속도원 모두가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속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같이 행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대화적 기도와 말씀묵상의 훈련들은 이 예배자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일치

다음으로 속회에서는 공동체에 하나 되기 위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로 모일 때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제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에 두어야 하며 이 몸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교제를 포함하는 하나 됨의 의미로 '일치'라는 말을 사용한다. 속회도 작은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눔을 가져야 한다. 속회에서 이러한 일치를 통해 각 속도원들은 속회와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훈련이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세,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와 같은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양육

속회에서는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양육이 있어야 한다.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자신의 사고와 습관과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속회에서 있어야 한다. 양육을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는 것과 함께 자신의 결단이 따라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양육에 있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은 중요한 과정이 된다. 성경 공부는 양육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에 속한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성서적 배경과 영적 성장의 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모든 속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요소이다.

라. 사역

속회는 사역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역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봉사활동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속회에서 공통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임을 위한 작은 일들을 담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사역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겠지만 인간의 실제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 엥겐(Charles Van Engen)은 “교회 공동체를 인간 조직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기적 조직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의 선교는 은사(gift)이며 동시에 일(task)이고, 영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²⁰⁰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개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사역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해야 한다. 사역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하는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마. 선교

속회에서는 선교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실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불신자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회심시켜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는 종합적인 사역을 말한다. 따라서 선교는 실천적인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확신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효과적인 방법을 구비한 성장한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선교의 영역은 이전까지 예배와 일치와 성장과 사역의 요소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선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다. 세상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봉사와 선교의 활동은 그 속회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결속력과 속도원들의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200)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6), 41.

2. 속회별 커리큘럼의 운영

모든 속회는 지금까지 정리한 다섯 가지의 교회의 목적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워가야 하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져가게 된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제시한 단계별 속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의 다섯 가지 핵심가치들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질 것이다.

가. 가족속회에서의 운영

가족속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공동체에 대한 '일치'의 영역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다. 신앙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도 가족 속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육과 사역과 선교에 대한 부분도 약간씩 제시해 주어 앞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나. 목양속회에서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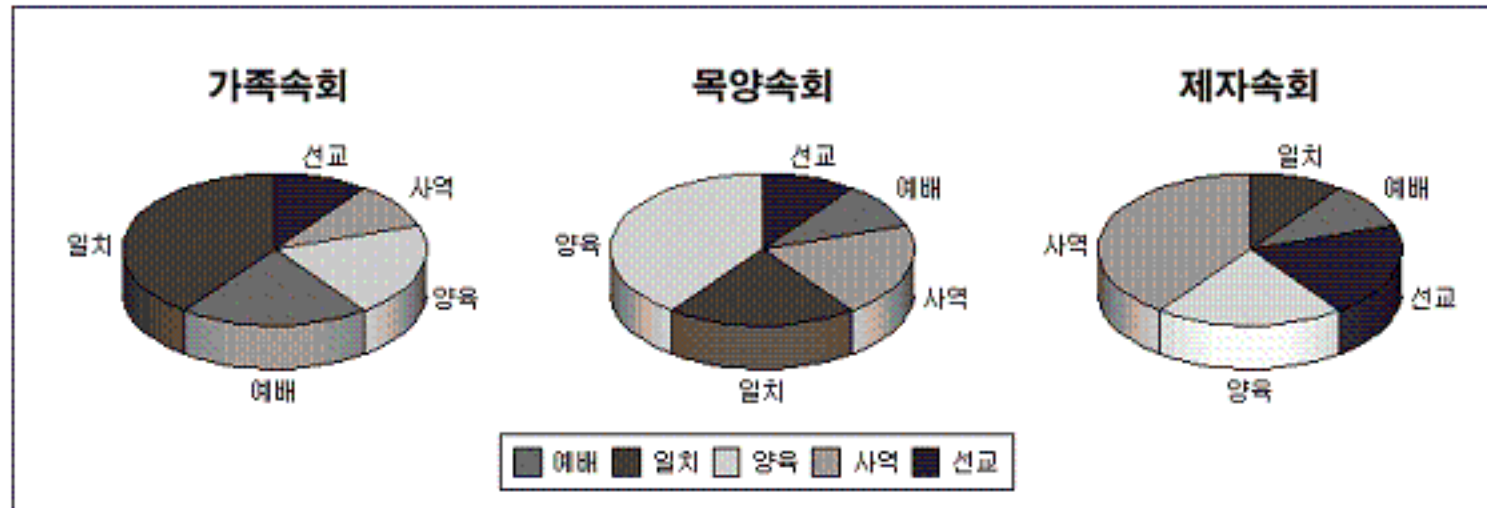
목양 속회에서는 교회의 다섯 가지 목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되 주로 '양육'부분에 초점을 두는 커리큘럼을 계획한다. 목양속회에서는 신앙의 성장과 기독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목양속회에는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양육이 강화될 때 연속적으로 예배나 일치 사역과 선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게 된다.

다. 제자속회에서의 운영

제자속회에의 목적과 방향은 사역과 선교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헌신된 제자들을 세워가는 것이다. 커리큘럼도 사역을 잘 하도록 돕거나 선교지향적인 것으로 운영해 간다. 예배나 일치 양육에 대한 영역도 다루는데 가족속회나 목양속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리한 세 단계의 속회에서 각각 중요하게 강조되는 교회의 핵심가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세 단계 속회에서 다루어지는 핵심가치의 분포도²⁰¹⁾



3. 속회단계별 운영 리더십

일반적으로 속회와 같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네 가지의 리더십 유형이 있으며²⁰²⁾ 속회를 세 단계로 나누어 운영할 때 각각의 속회에서 요구되는 속장의 리더십에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다음은 속회에서 보여져야 할 네 가지 리더십 유형과 그에 따른 속회의 변화이다.

가. 지도하기(Directing)

속장이 속회를 진행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속장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 속회모임의 초구나 가족속회와 같은 경우 속장이 속회의 진행을 주관하고 모임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속회에 기본적인 규칙의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속장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201) 이 도표는 각각의 핵심가치가 세 단계의 속회에서 운영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각 수치가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각의 핵심가치의 비중은 단순히 시간적인 분배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주제적인 강조점의 차이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각각의 속회가 가지는 주제적인 분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년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각 속회의 주제를 모아놓았을 때 표3과 같은 분포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2) 백은실 외,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강의안* (서울: CRC, 2006), 12.

나. 촉진하기(Facilitating)

촉진은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데 속장의 권유와 질문과 격려 등이 이러한 촉진을 가져온다. 촉진의 과정을 통하여 속도원들은 점차 속회에 동화되어 가며 속회의 건강한 성장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가족속회에서 목양속회로 갈수록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이 더 요구된다. 또한 모든 속회의 도입부분에서는 이러한 촉진과정을 통하여 속도원들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다.

다. 본보이기(Modeling)

본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속도원들은 매순간 속장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된다. 따라서 본을 보이는 리더십은 모든 속회에서 보여주어야 할 지도방식이 된다. 이를 위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훈련된 속장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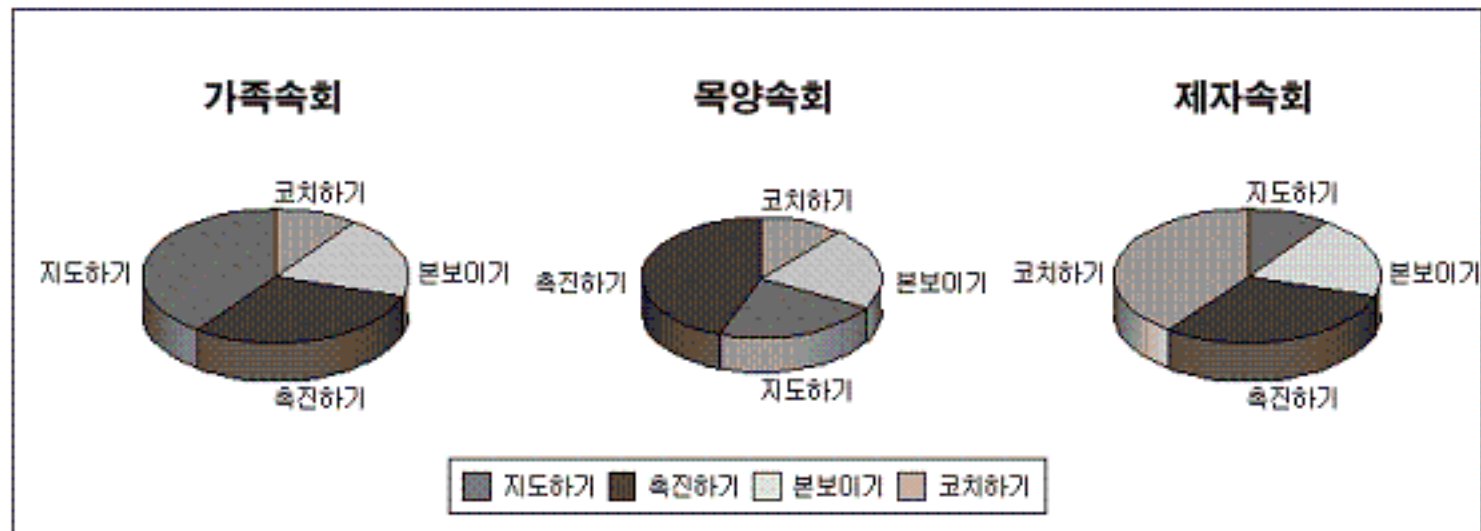
라. 코치하기(Coaching)

코치하는 리더십은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쌍방적인 대화를 중시하며 오히려 속도원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리더십이다. 코치는 속도원들이 가진 성장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이를 활용하도록 옆에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속장이 핵심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주면 속도원들이 참여하고 자발적인 운영을 해가는 것이다. 이는 목양속회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제자 속회에서 더욱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을 통하여 속도원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각각의 속회가 발전함에 따라 속장의 리더십은 처음에 주도하는 자세에서 나중 에 밀어주는 태도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가족 속회에서 속장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목양속회에서는 속장의 지도와 속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나아가 제자속회에서는 속장의 코치를 통해 속도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리더십 유형의 변화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세 단계의 속회에서 사용되는 리더십 유형의 분포²⁰³⁾



4. 속회 커리큘럼의 실제

단계별 속회조직의 적용을 위해 각각의 속회에서 운영되는 커리큘럼의 실재를 예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커리큘럼 전체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를 작성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 주의 공과 본문을 통해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커리큘럼 계획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단계의 속회에서 가질 수 있는 커리큘럼을 도표화 하여 제시한다.²⁰⁴⁾ 다음의 첫 번째 <표 5>는 각각의 속회가 운영할 수 있는 신앙적인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를 정할 때는 가족속회에서 제자속회로 갈수록 단순한 주제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론적인 주제에서 실천적인 주제로, 개인적인 주제에서 공동체적인 주제로 선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표 6>는 각각의 속회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을 예로 들어 본 것이다.

203) 이 도표는 각각의 리더십유형이 세 단계의 속회에서 운영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참고로, 가족속회는 지도하기 40퍼센트, 촉진하기 30퍼센트, 본보이기 20퍼센트, 코치하기 10퍼센트 이며, 목양속회는 지도하기 20퍼센트, 촉진하기 40퍼센트, 본보이기 20퍼센트, 코치하기 10퍼센트 이며, 제자속회는 지도하기 10퍼센트, 촉진하기 30퍼센트, 본보이기 20퍼센트, 코치하기 40퍼센트 이다.

204) 여기서 제시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다. 원래는 개교회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각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교단적 차원에서 목회자, 속회지도자, 기독교교육전문가 들로 이루어진 커리큘럼연구팀을 운영하여 이러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각 교회에 제시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표 5> 세 단계의 속회에서 운영가능한 공과 주제의 예

	가족속회	목양속회	제자속회
예배	기독교 예배의 의미 그리스도의 주되심 은혜와 평강의 체험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과 감사의 훈련 하나님의 임재와 내적치유	예배자의 삶으로의 헌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전쟁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
일치	구원과 복음이해 교회에 대한 소속감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론 화해와 갈등해결의 훈련 중보기도의 훈련	그리스도중심의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
양육	복음과 구원의 의미 성경의 개론적 이해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	성경연구방법과 실행 성경말씀묵상과 적용 기도방법과 훈련	속회성경공부인도 신구약집중연구
사역	소명과 은사발견 구제와 돌봄의 사역 헌금과 재정관리	은사의 개발과 사용 교회의 사역이해와 동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사명예의 헌신 사회봉사 및 구제활동 재정적 헌신
선교	전도의 이해 오이코스전도 간증과 나눔	복음제시와 전도방법 속회의 증식을 통한 성장	타문화 선교의 이해 선교지원 및 동참 새로운 속회형성

<표 6> 세 단계의 속회에서 운영될 커리큘럼의 활동의 예

	가족속회	목양속회	제자속회
예배	찬양과 찬송배우기	다양한 예배경험하기 찬송시를 짓고 나누기	돌아가며 예배인도하기
일치	자기소개하기 함께 음식을 나누기	서로가 중보기도하기	속회별로 수련회 가지기
양육	성경구절 외우기 기독교 영화 함께 보기	신앙서적 읽고 나누기	전문세미나 참여하기 멘토링하기
사역	은사점검표 작성하기	서로의 사역소개하기	사회봉사와 구제 참여하기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하기
선교	간증문 준비하기 전도대상자 기도하기	방문전도 나가기 전도편지 쓰기	선교지 조사하고 지원하기 단기선교 준비하기

나. 공과운영의 실제

세 단계의 속회조직에서 사용될 속회공과도 각각 세권의 다른 공과로 만들어 지게 된다. 그러나 세권의 공과의 기본적인 본문의 범위와 내용은 일치하도록 한다.²⁰⁵⁾

205) 본문의 일치는 성경의 장 단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속회마다 한주에 같은 성경의 본문을 다루지만 구절이나 주제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속회의 특성에 따라 주제적 강조점과 적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각 공과의 주제를 정할 때에 먼저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문 안에 나타난 여러 신앙적인 주제들 가운데 각 속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같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속회별로 다른 주제로 공과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다.²⁰⁶⁾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주간의 속회들 마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긴 분량의 본문이 있고, 각 속회들 마다 따로 강조되는 짧은 분량의 본문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각각 '공통본문'과 '중심구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속회마다 같은 공통본문을 사용하게 되면 자격이 되어 다음단계의 속회로 이동했을 경우에도 공과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각의 속회는 3년을 기본주기로 하기에 공과도 3년을 하나의 기간(term)으로 삼는다. 3년의 기간 동안 성경전체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되 구약과 신약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한다.²⁰⁷⁾ 하나의 속회에서 3년간 공과를 공부하였다면 성경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다. 한 속회에서 3년 기간 동안 사용한 공과는 다음 기간에 보완과 수정 등의 재편집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예화나 적용이나 강조되는 중심구절 등에 변화를 준다.

이러한 공과의 전체개요를 이해하기 위해서 1회 분량의 공과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7>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족속회, 목양속회, 제자속회에서 사용될 공과의 개요이다. 3년간 속회를 운영하려면 1년을 52주로 할 때 이러한 공과개요표가 156개 필요하게 된다.

206) 같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각 속회별로 차별화 하여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만으로는 어렵다. 전문적인 연구모임이 결성되어 공과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공과를 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회자와 기독교 교육전문가 그리고 속회인도자 등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 개발팀을 운영하여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전체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나 교단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각주 202 참조) 전문적인 커리큘럼 개발팀이 교회의 규모에 따라 50명 미만, 50명에서 200명사이, 200명에서 1,000명사이, 1,000명 이상 등으로 나누어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207) 신구약 전체를 3년의 기간 동안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 통독표를 참조하여 3년의 분량으로 재조정을 하던가, 성서일과를 따라 절기를 고려하여 본문을 분배하는 방안이 있다.

<표 7> 요2:1-12의 본문에 따른 세 단계의 속회의 공과개요 및 운영표

	가족속회	목양속회	제자속회
공통본문	요한복음2:1-12		
중심구절	요2:3	요2:10	요2:7,8
주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순종하여야 한다
주제적 본문관찰	1.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2.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1.물이 변하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2.더 좋은 포도주는 혼인집에 기쁨을 주었다	1.기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했던 종들을 통해 일어났다 2.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확장을 가져왔다
주제해석	예수님께 솔직하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자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습관과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
실천사항	서로의 급박한 필요를 나누는 중보기도	한주일 동안 모든 약속을 잘 지키기로 서로 약속	서로의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와 협력
첨부자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필요가 채워진 간증	내가 변하여 가정이나 공동체가 화목해진 간증	본문에 대한 다른 번역본 선교현장의 이야기

이제는 각각의 단계별 속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과진행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가족속회의 공과는 복음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를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요한복음 2장 1-12절의 본문에서는 복음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혼인집에서 일어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시며 우리의 작은 문제라도 이해하고 같이 해결하실 분임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소개한다.

또한 신앙생활의 기본원리로 마리아의 기도를 말할 수 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도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청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 때때로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서로가 중보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원리이다. 비록 예수님의 공생애의 때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과 이유가 분명해 지는 것이다.

속장은 이러한 내용을 속도원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질문

의 목적은 속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성경본문의 자리에 있는 현장감을 느끼고 그와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여서 말씀을 더욱 더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때로 속장이 개인적인 간증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공과의 적용은 서로가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마쳐진다. 적용을 통해 속도원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며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다음의 <표 8>는 가족속회의 공과진행의 예를 도표로 나타내 본 것이다.

<표 8> 가족속회의 공과진행 예

순서	내용	진행요령
제목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	
전체본문	요한복음2:1-12	다같이 읽고 묵상한다
중심구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요2:10	속장이 중심구절을 소리 내어 읽고 시작한다
도입질문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급박했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었는가?	모든 속도원들이 대답 할 수 있게 한다
질문1	본문에서 혼인집은 어떤 상황이었나?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1	혼인집은 축제와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속장의 설명
도입질문2	위기가 닥칠 때 내가 가장 주로 취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질문에 4-5명 정도 대답 하도록 한다
질문2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2	예수님께 포도주의 부족함을 아뢰고 구하였다	속장의 설명
질문3	이때 예수님의 반응과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3	비록 예수님의 때는 아닐찌라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에 공급해 주셨다	속장의 설명
해석	1.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다 2.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함께 하신다 3.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려움을 알려야한다 4.간절함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 응답하신다 5.다른 사람의 필요라도 중보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속장이 순서를 따라 설명 하면서 지도한다
적용	1.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도록 한다 2.주변에 위기가 닥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	토론을 통해 주어진 항목 이외에도 적용을 나누도록 한다
합심기도	1.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함 2.서로의 기도제목을 위한 중보기도	기도를 통한 일체감을 경험하도록 한다

둘째, 목양속회는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연구하여 말씀의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말씀의 해석을 통한 자기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을 연구하다보면 꼭 떨어진 결론을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속장은 가르치기만 할뿐 아니라 듣기도 하며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하도록 촉진한다.

요한복음 2장 1-12절의 본문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그 혼인집에 커다란 기쁨을 준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포도주와 같이 어디서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혼인풍습이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의 중요성 등의 자료를 찾아서 같이 나눈다. 좀 더 심화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예수님의 사역을 암시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속장은 속도원들에게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며 영적으로 도전을 준다. 또한 자신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사역과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가르쳐 주도록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다음의 <표 9>는 목양속회의 공과 진행의 예를 도표로 나타내 본 것이다.

<표 9> 목양속회의 공과진행 예

순서	내용	진행요령
제목	기쁨을 나누는 사람	
전체본문	요한복음2:1-12	다같이 읽고 묵상한다
중심구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속장이 중심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시작한다
도입질문1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바꾸고 싶은 성격이나 단점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할 사람은 모두 기회를 준다
질문1	지금 혼인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1	잔치에 사용할 포도주가 가장 필요하였다	속장의 설명
도입질문2	만약 지금 나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질문에 4-5명 정도 대답하도록 한다
질문2	포도주가 공급되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2	더 좋은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었다	속장의 설명

질문3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3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속장의 설명
해석	1.우리에게는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이 있다 2.이 옛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 3.예수님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4.우리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속장의 설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토의하도록 한다
적용	1.꼭 변화되기 원하는 성격이나 습관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며 기도해 준다 2.한 주간 동안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훈련을 한다	이외에도 적용할 것이 있으면 모든 속도원이 한주 동안 실천해보도록 한다
합심기도	1.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고하는 기도 2.서로의 가정에 화평을 위한 중보기도	

셋째, 제자속회는 제자의 기본적인 원리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아울러 선교와 전도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룬다. 요한복음 2장 1-12절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던 하인들의 믿음을 이야기 한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그 유익에 대해 설명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며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켰다. 이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확장된다는 점도 강조될 부분이다. 선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시지만 그와 협력하여 사역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나눈다. 나중에 적용과 기도시간에는 서로의 사역과 영적인 문제점을 위해 중보로 기도를 나눈다. 다음은 제자속회의 공과진행의 예를 도표화 한 것이다. 다음의 <표 10>은 제자속회의 공과진행의 예를 도표로 나타내 본 것이다.

<표 10> 제자속회의 공과진행 예

순서	내용	진행요령
제목	기적을 만드는 순종의 능력	
전체본문	요한복음2:1-12	다같이 읽고 묵상한다
중심구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요2:7,8	속장이 중심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시작한다
도입질문1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가?	질문에 4-5명 정도 대답하도록 한다
질문1	누가 예수님을 도와서 기적을 보게 했나?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1	하인들이 예수님을 도왔다	속장의 설명
질문2	하인들이 구체적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2	항아리에 물을 붓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속장의 설명
도입질문2	내가 해본 교회일중에서 하기 싫고 피하고 싶었던 때는 언제인가?	질문에 4-5명 정도 대답하도록 한다
질문3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3	기적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다른 방법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인들은 책망 받았을 것이다	속장의 설명
질문4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본문을 보게 한다
관찰4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했다	속장의 설명
해석	1.예수님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2.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3.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4.사역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연합될 때 이뤄진다	속장이 순서를 따라 설명한다
적용	1.순종은 하고 싶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 2.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을 행하도록 한다	토론을 통해 주어진 항목 이외에도 적용을 나누도록 한다
합심기도	1.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 2.서로의 사역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	

이상과 같이 세 단계의 속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공과진행을 살펴보았다. 크게 보면 공과진행 자체는 예배, 일치, 양육, 사역, 전도의 다섯 가지 핵심가치 가운데 양육의 범주에 속한다. 속회에서 공과진행의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한다면 양육의 비율이 속회마다 가장 높게 될 것이다.²⁰⁸⁾ 본 연구자가 세 단계의 속회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의 차이는 공과진행만을 염두에 둘 때 시간의 분배라기보다는 주제의 분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커리큘럼을 속회별로 구체화 하여 적용하는 것은 공과를 운영하는 인도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208) 본 연구자가 이해하는 바로 양육의 넓은 의미는 다섯 가지 교회의 핵심가치를 전수하고 세워가도록 돕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공과중심으로 운영하는 속회는 양육모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바라는 속회는 이러한 양육을 통하여 다섯 가지의 교회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속회이다. 양육이 속회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속회가 양육만을 위한다고 볼 때 성경공부 중심의 모임이나, 실제적인 신앙의 성장보다는 신앙의 지식만 커지는 모임이 될 것이다.

제 3 절 속회운영

이번 절에서는 교회에서 속회를 운영하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속회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세 단계로 나누어진 각각의 속회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게 될 것이다.

1. 속회의 실제

가. 속회의 구성

속회는 최저 5명에서 최고 15명의 속도원으로 모임을 구성하되 7명에서 12명을 권장한다. 이 정도의 인원이 관계성을 가지고 모임을 운영하기에 효율적인 수가 될 것이다. 보통 12명이 넘어가게 되면 속회를 분할하여 증속을 하도록 한다. 속회에는 한 명의 속장과 다른 한 명의 예비속장을 두어 속회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 속장은 속장의 자격을 갖춘 성도를 목회자가 임명하여 파송하되 예비속장은 그 속회에서 선출한다.

가족속회는 기존의 가족속회의 구성원과 함께 새신자로 속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성도들과 타교회에서 이주해 오는 성도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목양속회는 가족속회에서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참석해온 성도들이 가입할 수 있다.²⁰⁹⁾ 제자속회는 가족속회에서 최소 3년 이상 소속되어 성장한 성도들로 구성한다.²¹⁰⁾

나. 속회의 모임

감리교 전통을 따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각 속회마다 형편에 맞게 약간의 시간변경은 허용한다. 남녀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맞추기에 어려우므로 남녀로 나뉘어 속회를 갖는다. 여자들의 경우 금요일 오전이나 토요일 중에 모이고 남자들의 경우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중에 모임을 갖도록 한다. 속회시간은 공식적으로 1시간을 갖고 이후에 자율적으로 교제시간을 가질 수 있다.

209) 가족속회에서 1년 만에 목양속회로 가는 속도원들은 이미 신앙이 있는 기존신자를 중심으로 한다.

210) 새신자가 와서 제자속회에 소속되기 까지 빠르면 4년 보통은 6년의 기간이 걸린다.

속회는 우선적으로 거주지지역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임을 갖는다. 그러나 가정이 아니더라도 속회로 모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또한 교회의 소그룹실 같은 공간이 마련되었다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아울러 분기별로 한 번씩은 속회축제의 시간을 마련해서 일정지역별로 속회들이 연합하여 모이고 예배하는 축제를 갖도록 한다.

다. 속회의 진행

기본적으로 속회는 속장의 인도를 따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공부를 한다. 이후에 속장과 더불어 속도원들이 각자의 삶을 나누며 서로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속장의 권면과 목회관리가²¹¹⁾ 있는 후에 광고를 전하고 마친다.

가족속회에서는 속회전후로 이야기 시간을 가져서 친밀한 분위기 속에 속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에는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목양속회에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충실하게 갖는다. 말씀이후에 삶의 적용들을 토의하고 한주일 동안 실천해 본 후 다음번 속회에서 그 적용들을 검토해 본다.

제자속회에서는 기본적인 성경공부와 더불어 실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권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는다. 웨슬리 당시의 속회에서 일어났던 '직고'에 가장 가까운 것이 제자속회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의 시간이 될 것이다.

2. 속회의 관리규칙

속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잘 준비된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때로는 공식화되어 모두에게 알려지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서로간의 언약이다. 이러한 언약은 서로 서로에 대한 헌신을 구두화하고, 그것에 가동성을 부여시키는 방법이다.²¹²⁾

가. 속회의 가입과 진급

속회자체가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 영적성숙을 가져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211) 목회관리는 속도원들의 가정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거나 교회봉사활동을 관리한다.

212) 미국 IVCF 간사팀, *소그룹리더 핸드북*, 정옥배 역 (서울: IVP, 1984), 81.

때문에 모든 속회는 목적에 대한 동의와 서약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가족속회는 새신자의 경우 새신자반의 교육을 등록한 사람이 소속될 수 있다.²¹³⁾ 다른 교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도 우선은 가족 속회를 거쳐야 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속회의 기본기간은 3년이며 적어도 1년을 머물러야 목양속회로 갈 자격이 부여된다. 속도원은 3년이 지나도 가족속회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목양속회는 가족속회에 적어도 1년 이상 있었던 성도로 목양속회에 소속되기 위한 책임에 서약하는 것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자속회의 경우 최소한 3년간 목양 속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역시 제자 속회에 대한 헌신을 서약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²¹⁴⁾

나. 속도원의 책임

각 속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제도를 정하여 운영한다. 세 가지의 속회 모두 무단으로 4회를 결석하거나 6개월 동안 6번 이상 결석하면 주의와 함께 속회 준회원으로 바뀐다.²¹⁵⁾ 준회원은 다음 6개월간 참석이 성실할 때 다시 정회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다음 6개월 안에서도 앞서서와 같이 성실하지 못할 경우 속회에서 제적을 당한다. 이 경우 제적을 당한 속도원은 목회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속도원들은 매년 1월에 재임명을 통해 다시금 1년간의 자격을 갱신한다.

가족속회는 속도원들로 하여금 속회 참석 이외에 주일예배의 참석을 요구한다. 목양속회의 속도원들은 가족 속도원의 책임에 더하여 십일조를 포함한 정확한 헌금생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목양속회에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사역에 참여 할 것을 권장하며 교회의 여러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한다.

제자속회에서는 앞의 목양속회에 부여된 책임과 더불어 전도와 선교에 일정시간 헌신할 수 있으며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봉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일예배 이외에 하나이상의 교회 집회에 꾸준히 참석 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새신자는 주일 예배전후에 새신자반으로 모여 교회안내와 기독교의 기본교리에 대해 배운다. 새신자는 주중에 주거지 지역에 가족속회를 소개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관리는 가족속회의 속장이 하도록 한다.

214) 부록1의 서약서를 참조할 것.

215) 실제 속회의 규칙이 운영될 때는 비록 규칙은 엄격하지만 속장이 결석자나 부진신자를 심방하는 돌봄의 사역이 병행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속회는 특성상 9회 결석까지 인정해준다.

모든 속도원들은 속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 가는데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며 속장의 인도와 교회의 목회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²¹⁶⁾

3. 속장의 관리

속회의 성장이나 쇠퇴는 대부분 속장의 지도력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속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속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 속장의 자격

모든 속장은 최소한 제자속회에서 1년 이상 소속된 속도원에서 선출한다. 단 제자속회의 속장을 맡기 위해서는 제자속회를 3년 이상 참석한 자로 자격을 정한다.²¹⁷⁾ 속장은 신앙적인 면 이외에도 지도력과 성품과 가정환경과 사회생활 등의 검증을 거쳐 목회자가 선출한다.²¹⁸⁾

나. 속장의 교육

속장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속회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속장예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속장예비자 교육은 3개월이며 2개월은 공통과정으로 속장의 지도력에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1개월은 각 속회에 따른 심화과정으로 분리하여 교육한다. 이 과정을 거쳐 속장으로 임명되면 매주 모이는 속장모임에 참여하도록 한다. 속장의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도력과 가르침에 대한 교육을 주로 다룬다.

다. 속장의 책임

속장은 크게 세 가지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자신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216) 속회의 종류와는 별도로 모든 속회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알려주면 모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속회모임에서 성례를 시도하거나, 임의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 속회모임을 이유로 주일성수를 어기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속도원 간에 금전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217) 성도가 처음 가족속회부터 시작해서 속장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면 5년, 보통은 7년, 그리고 제자속회의 속장이 되기 위해서는 7년에서 9년이 걸린다.

218)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목회자와 속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성장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속장도 공인이기에 자기의 생활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는 속도원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과 훈련의 책임을 가진다. 속장은 속회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며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등 작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²¹⁹⁾ 무엇보다 속장은 속도원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수고해야 한다. 셋째는 속회의 관리자로 속도원들과 목회자와의 간격을 좁혀주며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헌신해야 한다.

4. 교회적 지원

본 연구자가 제시한 영적 성장을 위한 단계별 속회가 각 교회에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회차원에서의 목회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가. 목회자의 지도력

지역교회에서 속회중심으로 교회의 구조적 전환을 할 때 무엇보다 목회자의 비전과 실행력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속회중심의 목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실험적 적용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속회를 활성화하고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 가운데 인내하며 땀을 흘릴 수 있는 헌신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목회자의 비전을 나누고 교회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통해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나. 평신도 지도자의 참여

목회자와 함께 평신도 지도자들의 협조가 새로운 속회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속회의 장점에 대한 교육과 속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평신도 지도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속회를 통한 교회의 변화와 성장에 동참하게 될 때 새롭게 제시된 속회구조가 교회에 잘 정착하는데

219) 속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회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엄격한 속도원의 규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혜롭게 감독하며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속장의 지도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다.

다. 제도적 구비

새로운 속회구조를 교회에서 적용하고자 할 때 교회의 행정과 제도에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교회에서 속장과 속도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며 각각의 속회를 위한 자세한 커리큘럼과 공과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주증의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주관의 행사나 부수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조직을 단순화 하여 속회중심의 목회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6 장

결 론

한국교회는 교회의 태동 때부터 시대적인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해 왔다. 개신교 복음이 전해진지 1세기가 넘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전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어 교인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어려움 이지만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점차 제도화 되어 가는 한국교회로서는 힘이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교회성장을 위주로 성장을 해왔다. 결과적으로는 교회들의 덩치가 커졌지만 그러한 양적성장에 뒤따라야 할 질적인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왔다. 그 결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부여받은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기를 통해 오히려 재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위해 한국감리교회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보려고 하였다. 현재의 한국감리교회의 모습은 시대는 다르지만 웨슬리 당시의 영국교회가 맞이한 시대적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 당시 영국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했던 물결의 중심에는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속회였다.

본 연구자는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가 변화를 이루어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속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속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래 성화를 추구했던 감리교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위한 공동체적인 지원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속회 활성의 두 가지 키워드를 오늘날의 용어로 정리하자면 '영적 성장'

과 '소그룹'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적 성장과 소그룹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감리교회에 적용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영성이다. 본 연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에서 영성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서 영성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는 출발점이 되고 그 종착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서적인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한 점진적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영적 성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성장의 주된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거룩한 관계성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의 이증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영적 성장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갈 때 변화된 공동체는 또한 신자들을 위한 더 좋은 공동체로 변화된다. 이렇듯 영적 성장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흐르고 공동체는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공동체 중에서는 기초공동체로 소그룹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형식과 일치하며 성경적인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초대교회의 형태와도 비슷하며 역사적으로 교회의 본질과 역동성을 유지하는 가장 적절한 모임의 형태임이 증명되었다. 소그룹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성되고 자라날 수 있다. 소그룹이 지닌 관계성과 유연성 그리고 활동성으로 말미암아 소그룹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터전이 된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이러한 영적 성장의 정신과 소그룹의 역동성이 만나서 그 불길이 타오른 것이다.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과 이것을 유지할 시스템이 있을 때 교회는 다시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본 연구자의 관심은 한국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 속회의 원래적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 진행했다. 그런 시도의 결과로 기존의 한 종류의 속회를 세 단계의 속회로 변화 적용해 보았다. 그것은 가족속회, 목양속회, 제자속회로서 각각 영적 성장의 단계가 향상되는 구조로 짜임새를 이루고 있다. 가족속회는 새신자와 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돌봄과 교제, 그리고 기초적인 양육이 실시되게 하였다. 목양속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하기 추구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인 양육과 훈련이 준비되었다. 제자속회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헌신과 열정이 있는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양육과 더불어 사역과 전도를 실천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세 단계의 속회를 운영하기 위해 웨슬리의 감리교 조직에서 실시되던 규칙들을 적용해 보았다. 각각의 속회는 본인이 희망과 더불어 일정의 자격이 부여 될 때 소속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단계의 속회는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커리큘럼을 가지게 된다. 이 커리큘럼은 교회가 가져야 할 핵심가치가 중심이 되는데 예배, 일치, 양육, 사역, 선교가 그것이다. 세 단계의 커리큘럼에는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단계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예배에서부터 선교로 갈수록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제안한 새로운 속회의 구조와 커리큘럼을 지혜롭게 실행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교회의 갱신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교회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속회운영의 변화를 통하여 한국감리교회가 제도적 교회로서 대그룹과 교회안의 교회로서 소그룹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부록 1

가족속회 서약서

가족속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나는 매주 마다의 가족속회에 성실하게 참여 하겠습니다.
2. 나는 속회에서 속장의 지도를 존중하며 따르겠습니다.
3. 나는 같은 속회에 모인 속도원들을 한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4. 나는 속회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다른 곳에서 전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교인으로 주일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6. 나는 4번의 무단결석과 6개월 내 9회의 결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7. 나는 1년간 가족속회에 소속되며 이 자격을 매년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본인 _____ 는 가족속회의 소속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지켜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

부록 2

목양속회 서약서

목양속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나는 매주 마다의 목양속회에 성실하게 참여 하겠습니다.
2. 나는 속회에서 속장의 지도를 존중하며 따르겠습니다.
3. 나는 같은 속회에 모인 속도원들과 화합하며 사랑하겠습니다.
4. 나는 속회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다른 곳에서 전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교인으로 한곳 이상에서 교회사역에 봉사하겠습니다.
6. 나는 교인으로 주일헌금 이외에 십일조를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7. 나는 4번의 무단결석과 6개월 내 6회의 결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_____ 는 목양속회의 소속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지켜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

부록 3

제자속회 서약서

제자속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나는 매주 마다의 제자속회에 성실하게 참여 하겠습니다.
2. 나는 속회에서 속장의 지도를 존중하며 따르겠습니다.
3. 나는 같은 속회에 모인 속도원들을 한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4. 나는 교인으로 주일예배이외에 다른 모임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5. 나는 교인으로 주일헌금 이외에 십일조를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6. 나는 하나이상의 교회사역에 봉사하며 교회의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7. 나는 제자로서 1년에 한 가정이상 전도하여 제자를 삼겠습니다.

본인 _____ 는 제자속회의 소속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지켜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곽안련,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 김덕수, *셀 교회 전환과 셀 리더 세우기*, 서울: NCD, 2002.
- 김민섭, "성공적인 소그룹사역을 위한 교회론의 조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Pasadena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3.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KMC, 2006.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감리교 21세기 선교를 준비하며*, 서울: 감리회선교국, 1999.
- _____, *7천교회 2백만 신도운동 사업계획안*, 서울: 감리회선교국, 1991.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김외식, *현대교회와 영성목회*, 서울: 감신대출판부, 1994.
-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KMC, 2004.
- 김정우, "성경의 영성과 성경적 영성," *신학지남* 72권3집 (2005), 6-32.
- _____, "구약성경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후에서 성화의 은혜까지*, 박영선 편, 서울: 이레, 2005.
- 김홍기, *감리교회사*, 서울: KMC, 2003.
- _____,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서울: 예루살렘, 1992.
- _____, "초기감리교회의 조직화와 속회 중심의 영성훈련", *신학과 세계* 40 (2000): 69-125.
-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6.
- _____,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박용호, "한국교회속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2000.
- 박춘화, *감리교회와 속회*, 서울: 보이스사, 1995.
- 백은실 외,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강의안*, 서울: CRC, 2006.
- 송길섭, *상동교회 90년사*, 서울: 상동교회출판부, 1979.
- 신경규, "선교적 영성형성에 관정에 관한 일 고찰," 제2차 국제신학 학술대회자료집.

- 천안: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3.
- 안행태, "속회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 학원, 풀러신학교, 1984
- 이덕주, "한국감리교회사", *교사교육 전문과정*, 감리회교육국 편,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1996.
-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0.
- _____, *신앙성장론*,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5.
- 이후정, *성화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_____,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한국웨슬리신학회,
1999.
- 장천기, "초기 감리교회의 영적책임을 회복한 속회지도 모형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2001.
- 장학일, *밴드로 들어가라*,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8.
- _____,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9.
- 전태규, *속회활성화를 위한 7키워드*, 서울: 예루살렘, 2002.
- 조용기, *나의 교회성장이야기*, 서울: 서울말씀사, 2005.
- 채부리, *감리교회와 속회*, 서울: 감리회교육국, 1983.
- 하용조 편,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1.
- 한미준, 한국갤럽 공편,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 한국웨슬리연구회 편, *21세기 위기의 목회 어떻게 극복하나*, 서울: 서로사랑, 2002.

2번역서적

-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 Banks, Robert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 _____,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9.
- Beckhem, Bill,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 Cloud, Henry an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윤종석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 Cole, Neil.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편집부 역. 서울: NCD, 2004.
- Colmann, Robert. *주님의 권도 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Corniskey, Joel. *지투엘브 이야기*. 정진우 역. 개정판. 서울: NCD, 2001.
- _____.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 Dieter, E. Melvin 외.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관해*. 김원주 역. 서울: IVP, 1991.
- Donahue, Bill, and Russ Robinson. *소그룹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Engen, Charles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6.
- Poster, Richard. *영적훈련과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Peace, Richard. *신약이 말하는 회심*. 김태곤 역. 서울: 좋은씨앗, 2001.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Gonzalez, Justo L. *초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 _____. *기독교 사상사*. Vol 3.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8.
- Grenz, Stanley J. *조직신학*. 신옥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 요단, 1993.
- Hull, Bill. *목회자가 제자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 1994.
- Hunter, G. George. *교회성장과 목회전략*. 김선도 역. 서울: 광림, 1987.
- Icenogle, Gareth Weldon.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 1997.
- Mallison, John. *생동감있는 소그룹메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5.
- McGavran, Donald A. *교회 성장 이해*. 이요한, 김종일, 전재욱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7.
- Neighbour, Ralph W. J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 Nicholas, Hon.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8.
- Pennington, Donald C. *소그룹 내 행동의 사회심리학*. 한지은, 유승민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Pentecost, Dwight J. *제자를 삼아라*.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Rainer, Tom S. *교회성장교과서*.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3.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 외 역. 서울: NCD, 1999.
- Simson, Wolfgang.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Snyder, Howard.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 _____.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형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Walker, Williston.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 Watson, David L. *이것이 속회이다*. 한경수 역. 인천: 주안교회, 1993.
- Williams, Collin. *존 웨슬리의 신학*. 이계준 역. 서울: 전망사, 1993.
- 미국 IVCP 간사팀. *소그룹리더 핸드북*. 정옥배 역. 서울: IVP, 1984.

3. 외국서적

- Arnold, Jeffrey.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92.
- Mack, Michael C. *The Synergy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 Park, Dongchan. "A study on Uniqueness of John Wesley's Class Meeting & It's Application to Korean Church." D.min. diss., Wesley Theological Seminary, 1995.
- Peace, Richard. "From Discipleship to Spiritual Direction," *Theology, News and Notes*, March (1999): 7-22.

Vita of
Jae Jun Baek

Present Position:

Pastor of In Jesus Methodist Church, Pasadena, CA, USA.

Personal Data:

Birthdate: Oct. 04 1968
 Birthplace: Seoul,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Jung-Min Lee in March 23, 2003,
 with two children, Jee-Eun and June-Young
 Home Address: 271 N. Madison Ave #275
 Pasadena, CA, 91101
 Denomination: Korean Methodist Church
 Ordained: April 23, 2003

Education:

B. S.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1992
 B. A.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96
 Th. M.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9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7

Personal Experience:

2006 to present In Jesus Church, Pasadena, Pastor
 2005 to 2006 Logos Church, Pasadena, Member
 2004 to 2005 Somang Church, South Pasadena, Member
 1995 to 2003 Kwang Lim Methodist Church, Seoul,
 Evangelist, Pastor